

## PCUSA 대안 보수 장로교단 1년 동안 6배 성장

### 동성결혼 반대하는 교회들 가입 이어져

미국장로교(PCUSA)의 친동성애 정책에 맞서 창립된 보수 장로교단 북음 주의장로교인연합회(ECO: Evangelical Covenant Order of Presbyterians)의 교세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2012년 PCUSA를 탈퇴한 보수교회들이 중심이 되어서 발족시킨 ECO는 지난 주 텍사스 주 달러스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1년간 이뤄진 교단의 놀라운 성장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2013년 총회 당시 교회는 30개, 교인은 1만여 명의 규모였던 교단이 올해는 149개 교회와 6만여 명 교인으로 거의 6배에 가깝게 교세가 증가했다.

ECO에 새롭게 가입하는 교회들은 대다수가 PCUSA에서 탈퇴한 교회들로, 최근에는 교인 수가 4천여 규모인 하이랜드파크처치(텍사스), 멘로파크처치(캘리포니아), 그레이스처치(텍사스) 등 대형교회들이 연이어 PCUSA와 작별을 고하고 ECO에 합류했다. 한인교회 중에도 선한목자장로교회(고태형 목사), 베다니장로교회(박준걸 목사) 등이 PCUSA에서 이 교단으로 이명했다.

데이비드 앨런 총회장은 “이와 같은 성장은 매우 고무적인 것”이라고 평가하며, 앞으로 총회가 교세 성장에 발맞추어 교단 지원 확보와 타 교단, 단체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ECO에 가입을 원하는 교회들

의 수는 계속해서 늘고 있으며 총회 측에 이와 관련된 문의도 끊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교회들 역시 현재 PCUSA에서 탈퇴할 것인지의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으로, 이미 ECO에 가입한 교회들은 PCUSA를 떠나게 된 주된 이유로 동성결혼과 이스라엘 지원 등의 문제에 있어서 PCUSA의 입장 변화를 꼽고 있다.

한편, PCUSA는 2011년 총회에서 동성애자의 목사 안수를 허용한 이래로 매년 6만여 명씩 교인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CUSA는 지난 6월 열린 올해 총회에서도 목회자들의 동성결혼식 축복과 집례를 허용하고, 교단 규제집에 나와 있는 결혼의 정의를 ‘한 남성과 여성의(a man and a woman)’ 결합에서 ‘두 사람의(two people)’ 결합으로 바꾸는 안을 통과시켜, 보수 교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당시 보수 교인들은 이 결정으로 인해서 교단을 탈퇴하는 교회들이 더욱 늘어날 수도 있음을 경고했다.

PCUSA는 또한 최근 이스라엘 지원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이 역시 보수 교인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결정이 교단의 핵심 선교 가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순현정 기자



CGNTV 특별대담에서 박성근 목사(좌)와 박형은 목사(우)가 대담하고 있다. 이 대담의 사회는 권혁빈 목사(가운데)가 맡았다.

## EM의 딜레마 “독립하고 싶은데 돌봄도 받고 싶고”

한인교회의 미래라고 하는 EM. 그러나 현재의 모습에 대한 조명 없이는 미래를 이야기 할 수 없을 것이다. CGNTV가 개국 9주년 기념 특별대담 “한인교회: EM의 현재와 미래”에서 이 문제를 다뤘다. 이 대담은 얼바인 온누리교회 권혁빈 목사의 진행으로 로스앤젤레스한인침례교회의 박성근 목사, 동양선교교회의 박형은 목사가 대담자로 참여했다. 이들은 현재 EM 한인교회들이 마주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KM과 EM이 동역해 나갈 것인가를 토론했다.

먼저 KM 사역자와 EM 사역자 간의 깊은 관계를 저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화가 오고 갔다. 두 명의 대담자 모두 세대 간에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문화적 차이와 전통이 존재함을 시인했다.

박형은 목사는 KM과 EM이 부모와 자녀 같은 관계를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형은 목사는 “부모 없는 자녀는 성공적일 수 없다. EM은 KM으로부터 재정적이며 영적인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EM이 처한 딜레마는 KM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어하면서 동시에 영적인 돌봄을 받고 싶어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점에서 박 목사는 “많은 EM이 자신들이 부흥하지 못했기 때문에 KM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불평하지만, 부흥하고 있는 EM에

도 완전한 독립성은 주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성근 목사는 이런 점에서 한 지붕 두 가정 형태를 제안했다. 이는 1세와 2세가 한 교회라는 정체성 아래 서로 독립적으로 공존하는 형태다. 그러나 박형은 목사는 자신이 나성영락교회 EM에서 사역했을 때의 예를 들며, EM이 크게 성장하면 KM은 약간의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결국 EM만을 위한 교회로 독립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EM 목회자에 관해서도 대화가 오고 갔다. 문제는 2세 사역을 이끌 어갈 지도자의 수가 현격히 적다는 점이다. 박성근 목사는 “한인교회의 목회 환경이 EM 목회자들이 생각하는 그것과 매우 다르기 때문에 EM 목회자들이 사역을 그만 두곤 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2세 목회자들은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에 퇴근하길 원하지만 실제 목회 환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2세 목회자들에게 성경적 헌신을 요청했다.

반대로 박형은 목사는 2세 목회자들에게 대한 1세 목회자의 책임을 더 강조했다. 그는 “1세 목회자가 부목회자나 EM 목회자를 자신의 아들처럼 품고 격려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2세 목회자들의 수가 적은 이유에 대해 부모들의 반대를 꼽았다. 그는 “이민자들은 자녀가 물질적으로 성공하고 안정되는 것을 원한다”고

지적했다. 박성근, 박형은 목사는 한인교회들이 차세대 리더들을 양성할 수 있는 신학 교육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것은 곧 세계선교와도 직결된 문제라는 데에 공감했다.

2세대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교회를 떠나는 이른바 조용한 탈출(Silent Exodus)에서 관해서 박형은 목사는 “이는 가정의 문제다. 가정에서부터 신앙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원인을 밝혔다. 박성근 목사는 한인 부모들이 기도와 말씀에 열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산들이 잘 전수되지 않는 문제를 짚었다. 두 대담자 모두 한인교회 내의 분열과 갈등이 2세 사역에 미치는 영향에 크게 안타까워하며 진정으로 이 문제를 반성하고 회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KM과 EM,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도 적용되며 상호 간에 진실한 죄의 고백과 겸손함이 요청된다고 했다.

또 이들은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한인교회의 미래가 밝다”고 전망했다. 박성근 목사는 “다름 속에서 공통 분모를 찾아 동역할 수 있다”고 말하며 KM과 EM이 함께 단기선교를 가는 것 등을 제안했다. 박형은 목사는 “KM과 EM이 독립적보다는 상호의존적으로 함께 성장해 가야 할 것”이라 말했다.

이 대담은 오는 29일, 30일 서부 시간 저녁 10시에 CGNTV에서 시청할 수 있다. 이윤형 기자

## 갓스이미지 아프리카 어린이 위해 공연

굿네이버스USA 홍보대사인 갓스이미지(God's Image)의 제24회 정기 공연이 라미라극장에서 지난 23일 토요일 저녁 7시에 성황리에 열렸다. “사랑의 다리 콘서트(The Bridge of Love Concert)”라는 테마로 준비된 이번 공연의 수익금은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식수를 위한 우물 공사에 사용된다.

예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제자를 키워내는 갓스이미지는 오프라카운티 본부를 중심으로 미국 전역, 브라질, 캐나다 등에 7개의 지부를 가지고 있는, 전통과 실력을 겸비한 찬양 댄스 단체이다. 한편, 갓스이미지는 신입단원 모집을 위해 8월 30일과 9월 6일 오디션을 한다.

문의 : 714-519-4901

godsimageministry@gmail.com

문소현 기자

**나라정비 타이어 대리점**  
**GOOD YEAR**  
 유럽차전문점  
 SMOG CHECK  
 범퍼·도어·바디복원·무료견적·Rent Car  
**323.734.4881** | 월~금: 8am~6pm / 토: 8am~5pm | 1201 S.Western Ave, LA 웨스트안과 12가

크리스천을 위한 **오바마케어 벌금면제 혜택**  
 (H.R.3590 Religious Exemption)  
**월\$40~\$175**  
 • 수입과 신분에 상관 없음  
 • 모든 의사, 병원 사용 가능  
 • 한국에서도 사용 가능  
**가입문의 213-700-9212**  
**www.christianmutual.org**

**American University and Seminary**  
**2014년 가을학기 학생 모집 (신입생 및 편입생)**  
**개강 : 2014년 9월 2일(화)**

본교는 성경적 정통신앙과 개혁주의 신학에 기초한 신학교육으로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차세대의 목회자, 선교사, 교육자, 평신도 지도자를 양성하는 학교입니다. 당신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목사 아니면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가장 훌륭한 물리학자 혹은 경제학자가 되는 것입니까? 무엇을 하시든지 먼저 하나님을 아십시오. 당신 사명의 기반은 신지식입니다 (Knowledge of God). 성경에는 선행과 참된 것과 아름다운 것 즉 하나님 자신 안에 구형된 진선미의 삼위일체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들은 영원한 열매를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아메리칸 대학 신학대학은 충성스럽게 결단하고 오래동안 성경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가르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믿는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 지식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 길을 직접 인도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 하게 합니다. (롬 12:2) 그러므로 이 진리가 우리를 강권하여 우리의 직업희망을 포함한 우리 생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선하심, 그리고 절대적 주권의 인도를 받게 합니다. 아메리칸 신학교는 생을 건설하는 가장 확실한 기초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무엇보다 신지식이라고 믿습니다.

<b>박형은 신학 연구원</b> 믿는자들의 가슴과 마음속에 철저한 신지식 (knowledge of God)을 다시 불붙게 하기 위하여 아메리칸 신학교 박형은목사 신학연구원은 교회로 하여금 무엇이 선하고 참되고 아름다운지 생각나게 하려고 On-line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학교에 출석 못해도 신학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b>학위과정</b>   학사과정 : 신학 학사(Th.B.)   석사과정 : 목회학 석사(M.Div.) 종교교육학 석사(M.R.E.) 교회음악학 석사(M.S.M.) 신학 석사(Th.M.)   박사과정 : 목회학박사(D. Min.) 종교교육학 박사(D.R.E.) 선교학박사(D.Miss.) On Line 평생교육원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Form 발급	<b>입학안내</b>   등록 : 2014년 8월 18일(월) - 9월 6일(토)   입학서류 : 입학원서 (본교 소장양식) 학위 및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명함판 사진 2매   장학금 : 우수 학생에게 주는 각종 장학금
--	---	---

**아메리칸 대학교 신학대학원 (총장 김혜성)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 (323)732-7356, Fax (323)733-3041 Email : http://www.jsnahm@hotmail.com**



제8기 미주예심전도대학 졸업식에서 졸업생들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미주예심전도대학 제8기 졸업식 성료

#### 제9기 모집 및 공개세미나 9월 8일 예정

미주 지역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도의 열정을 불어 넣어 주고 있는 미주예심전도대학(학장 박용덕 목사)이 8월 25일 제8기 졸업식을 거행하고 22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남가주빛내리교회(담임 박용덕 목사)에서 열린 졸업식에서는 졸업생들의 감격스러운 간증과 실제적 전도의 나눔이 세 시간동안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어서 조은영 목사(남가주 크리스천교회)의 사회로 박람 사모(가나안교회)의 기도예에 이어 이종욱 권사와 정안나 집사의 크롬하프 축하 연주가 있었고 '보아도사상의 하나님'(고후9:16-24)이라는 제목으로 학장인 박용덕 목사의 설교

가 있었다.

'쉬운 전도, 되는 전도, 불신자도 좋아하는 전도'를 지향하는 미주예심전도대학 전도법은 본질적 전도, 눈높이 전도, 맞춤형 전도, 매력적 전도, 전전후 전도, 매그닛 전도, 면류관 전도, 애스킹 전도법 등을 통해, 쉽지만 강력한 파워 전도법을 가르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학교 관계자는 "한 번만 들어보면 매력적인 예심전도법에 푹 빠지게 하는 미주예심전도 강의는 주로 학장인 박용덕 목사가 가르치고 있으며, 동영상 훈련과 전도 간증을 통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요 전도자로 살게 한다"고 귀띔했다.

미주예심전도대학에 등록비는 50

불이며, 지원 자격은 목사, 사모, 전도사를 비롯하여 전도를 사랑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등록할 수 있다. 미주예심전도대학에 등록하면 매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서 12시 30분까지 13주의 교육을 받게 되며 수료자들에게는 졸업장과 함께 전도 리더의 자격이 주어진다. 현재 제9기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제9기는 9월 8일 오전 9시 30분 남가주빛내리교회 내에 있는 미주예심전도대학에서 시작된다.

주소는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90631이며, 전도대학에 등록을 원하는 사람이나 공개 세미나에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전화 714-401-9874로 연락하면 된다.

김미라 기자



탄자니아 선교기금 마련을 위한 제13회 미션스쿨 동문합창제가 열렸다.

### 미션스쿨 동문들 찬양으로 연합과 친목을!

탄자니아 선교기금 마련을 위한 제13회 미션스쿨 동문합창제가 24일 남가주가스펠교회에서 열렸다.

이번 합창제에는 배재고, 이화여고, 경신고, 정신여고, 송실고, 송의여고, 대광고 등 7개교가 참여했다.

올해 행사를 주관한 배재코랄의

이현규 단장은 "언제나 변함없는 기쁨의 찬양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울려 퍼지는 미션스쿨 동문합창제가 될 것"을 약속하고 이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모든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문소현 기자



제23회 정기연주회를 가진 필그림남성합창단

### 필그림남성합창단 제 23회 정기연주회

필그림남성합창단이 제23회 정기연주회를 24일 월서연합감리교회에서 개최했다. 이날 합창단은 성가합창, 일반음악, 한국가곡, 오페라합창 등 15여 곡을 소화하며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였다. 또한 소프라노 황혜경 씨 및 이대보컬앙상블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필그림남성합창단은 재창단하는 마음으로 이번 정기연주회 무대를 준

비했다. 필그림남성합창단 이창덕 단장은 "초대 지휘자였던 진정우 박사를 다시 상임 지휘자로 모시게 됐다"며 "하루종일 각자의 직업 전선에서 열심히 일한 후 연습까지 하려면 피곤함의 연속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대원들이 하나같이 음악을 사랑하고 좋아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밝혔다.

맹 토마스 기자

### 가수 현미와 함께 하는 고베펠 10주년 기념 팬사인회에 보석 가득

진주 전문 회사 '고베펠'이 올해로 10주년 창립 기념일을 맞아 LA와 가든그로브에서 더욱 알차고 특색있는 이벤트를 펼친다. 그 어느 때보다도 알찬 기획으로 다양한 상품을 선보인다.

특히 이번 진주 보석 쇼는 한국에서 예능 토크로 다시 한 번 전성기를 맞고 있는 국민가수 현미 씨를 초청해 사인회를 갖는 등 전시장은 덕담과 넉넉함으로 분위기를 한껏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진주 보석 쇼는 그야말로 고베펠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진주 보석 쇼로 준비되고 있다. 5천여 점 이상의 진주 보석을 전시장에 화려하게 꾸민다. 이번 특별 진주 보석 쇼가 열리는 전시장에는 진주뿐 아니라,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와 홍산호, 인공 핵진주 등 신제품도 대거 선보이며 최대 80%까지 무조건 대박세일을 펼친다.

이번 행사는 LA와 가든그로브로 나누어 개최되며, LA는 오는 9월 11

일과 12일 양일간 올림픽 길의 로텍스 호텔 2층 연회장에서, 가든그로브는 다음날인 13일 단 하루 라마다 플라자 호텔 2층 퍼시픽 룸(10022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에서 열린다. 그리고 일요일인 14일 하루는 벌몬 갤러리아에서 대미를 장식하게 된다.

현미 씨의 사인회는 엘에이 로텍스 호텔에서만 펼쳐진다. 이틀간 계속되는 사인회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이다. > 문의: 213-389-3887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323-735-6365** 올림픽+하버드

3130 W. Olympic Blvd, Suit 380 Los Angeles, CA 90006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진 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의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의원) W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천천히 다 돌려보내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푸엔테힐스 현대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 2014 가을 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목회학 (Korean Theology) (310) 539-1100**

-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 승천 등의 기독교론과 성경 세례, 은사, 사역의 실제와 예배로 영광돌린다.
- 기독교 사상을 바울 서신서를 중심으로 신학적 정립하며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재조명하는 능력을 기른다.
-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성서적으로 올바르게 이해하여, 깨어 준비 기도하는 삶을 고취시키도록 한다.

바울 서신서 (3)	김용호 교수	월 6:50 P.M. - 9:10 P.M.
신약 강론 (1)	이관호 교수	월 9:20 P.M. - 10:10 P.M.
성령 사역 및 예배학 (4)	김요한 교수	화 6:50 P.M. - 10:10 P.M.
요한계시록 (3)	라명철 교수	목 6:50 P.M. - 9:10 P.M.
구약 강론 (1)	이관호 교수	목 9:20 P.M. - 10:10 P.M.

**기독교 상담학 (714) 298-8763**

- 상담에 대한 기본 개념과 함께 여러가지 상담학의 기초 개념을 이해함으로써 상담자로서의 기본 자세를 갖추도록 돕는다.
- 인간 발달의 단계별 과제를 이해하고 발달 과제의 결함으로 인한 결과 및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영적 성장을 추구하도록 돕는다.
- 결혼 적령기 청년들의 필요 및 남녀 차이 이해, 아울러 결혼의 연약적 측면을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기독교 상담학 개관 (3)	금병달 교수	목 10:00 A.M. - 12:20 P.M.
청년기의 이해 및 결혼 (3)	금영진 교수	목 1:00 P.M. - 3:20 P.M.
내면의 이해와 영적 성장 (3)	금병달 교수	목 6:50 P.M. - 9:10 P.M.

**사역자 훈련 (Ministerial Training) (909) 438-8345**

- 주님의 지상명령 (마 28:18-20)에 부름 받은 선교적 사명을 수행할 자로 성경적인 기본을 다지고 선교적인 확신과 역사를 다룬다.
- 성령의 사역자로 쓰임 받으실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와 기쁨부으심과 성화된 인격을 개발하는 것을 다룬다.
- 사역의 기본과 성령 안에서 창의적인 사역들을 이루어 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훈련 받는 것을 다룬다.

사역의 기본과 실제 (5)	박문환 교수	토 10:00 A.M. - 2:00 P.M.
성령 사역 및 예배학 (4)	김요한 교수	화 6:50 P.M. - 10:10 P.M.
Healing & Power Min (5)	Paul Sung 교수	토 3:00 P.M. - 7:00 P.M.
성령 사역 및 예배학 (4)	김요한 교수	화 6:50 P.M. - 10:10 P.M.

**영어 목회학 (English Theology) (310) 749-0592**

- 영어는 국제화 시대에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언어이다. 영어 신학과정은 영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영어 목회학 과정은 영어 설교 및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남미, 아시아 등 해외에 영어로 선교 목회할 수 있도록 돕는다.

4복음서 (3)	Daniel Rhee	월 12:00 P.M. - 2:20 P.M.
교회 역사 (3)	Daniel Han	월 2:30 P.M. - 4:50 P.M.
IC (3)	Daniel Rhee	월 8:00 P.M. - 10:20 P.M.

- 유학생에게 1-20를 발급합니다.
- 개강예배 9월 2일(화) 오후 7시.

- 과목별 청강생을 환영합니다.
- 신앙 서적 기증바랍니다.

이상훈 목사의 터키 선교여행 일기

“아버지의 마음을 찾아서” (1)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누가복음 15장 7절)

여행을 하면 자신을 찾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선교여행은 자신을 넘어서 나를 파송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되는 것임을 고백하면서 저의 선교일기를 기록합니다.



이상훈 목사  
성광장로교회 담임

4월 20일, 오후 6시 30분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터키항공에 몸을 싣고 약 12시간을 날아 터키 이스탄불 국제공항에 내렸습니다. 이스탄불은 흑해와 지중해를 나누는, 아시아의 서쪽 맨 끝 땅과 유럽의 동쪽 맨 끝 땅을 모두 포함한 유럽과 아시아가 공존하는 세계 최대 또한 최고(最古)의 도시입니다.

이번 선교의 여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4월 23일에 있는 이스탄불의 남쪽 바다에 위치한 '부유아다 섬'에서의 기도선교사역과 그 이후, 터키의 남동부지역 특히 시리아와 국경을 맞닿고 있는 지역들의 깊은 곳에 들어가 예배가 없는 땅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가 없는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한 전도순례사역입니다.

4월 21일, 공항에 도착한 일행들은 다음날 4월 22일 오후 부유아다 섬에서의 기도선교를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가졌습니다.

이번 선교가 이루어지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터키 이스탄불에서는 4월 23일이 그리스정교회에서 지키는 성조지데이인데 그날 부유아다 섬의 산 위에 있는 성조지정교회에 올라가서 그곳 사제들에게 축복기도를 받는 신앙적 풍습이 민간들 사이에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그 수가 점점 많아지면서 하루에 최소 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기독교 사제들에게 기도를 받으러 그 섬에 오르는 신기한 현상이 생긴 것입니다.

교회 측에서는 자기들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최근 성장하는 터키개신교회협의회에 기도연합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터키 개신교회들로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터키개신교회협의회는 터키에서 사역하고 있

는 세계선교사협의회에 다시 도움을 요청하고 그 선교사협의회에서 최근 터키에서 성공적으로 연합중보기도운동을 이끌고 있는 한인 선교사들에게 기도에 참여를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미주에서는 터키연합중보기도운동을 돕고 있던 실크웨이브 미션에서 참여하기로 결정하여 약 30여 명이 참가지원을 하였습니다.

이 인원과 터키 현지 선교사들 중 참여한 분들이 모여서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리엔테이션의 인도는 터키 현지에서 방송과 문서선교를 하고 있는 BCC선교회의 김선희 선교사님이 맡아서 진행하였습니다.

미국 오렘선교회의 파송선교사로 미국인 남편과 함께 터키 선교를 리드하는 분인데, 영적 여장부라 느껴졌습니다.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예배시간 중에 말고라는 한 이집트 자매의 생사를 초월한 신앙간증은 첫날부터 제 가슴을 주님께 향하는 심정으로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철저한 이슬람 가정 특하나 여성은 더 차별받는 풍토에서 자란 이 자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 믿게 되었는데, 가족들의 핍박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탈출하였고 터키 선교사와 연결되어 지금에 이르렀다면서 믿음에 대한 강한 확신을 보여 주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마친 후 우리는 하나님의 폭포수같은 임재와 은총을 사모하며 내일 부유아다 섬을 찾아오는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해 달라고,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하심을 듣고 깨달아 믿게 되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해 달라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며

울부짖었습니다.

4월 23일, 드디어 수개월간 기도로 준비하면서 그려왔던 부유아다 섬을 가기 위해 일행은 선착장으로 아침 일찍 향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착장에는 우리보다 먼저 온 터키 현지교회 목사, 교우들, 세계 각국의 선교사님들, 그리고 지원자들이 어우러진 약 300여 명의 기도동역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한국인 동역자들을 뜨겁게 환대해주었고 그 시간부터 우리 모두는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이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몸인 그리스도의 연합된 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 천국이 그럴 것입니다. 혈통과 인종이 다 달랐던, 언어와 문화가 다 달랐던 수많은 세계 열방의 백성들이 하나로 모여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스런 보좌 앞에서 두 손 들어 맡겠 소리쳐 찬양할 것입니다.

300여 명의 세계 각국에서 모인 그

리스도인들은 예약한 배에 모두가 올라 뒀습니다. 누가 시작했다랄 것도 없이 우리는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뒀에서 울려 퍼진 찬양이 아래층까지. 아래층에서부터 시작된 찬양이 꼬리를 이어서 뒀층까지 모두가 환호성을 치며 찬양하였고 중간쯤 되어 각계의 대표들이 나와 말씀과 기도 인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터키 현지교회 대표가 터키어로 말하면 그 옆에 영어권의 대표가 통역하고, 그 다음에 한국 대표인 실크웨이브 미션의 김성간 선교사님이 한국어로 통역하는 3개국 동시 통역의 대부흥예배가 배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감격했습니다. 나를 들어 이런 자리에, 이런 영적 경험을 하게 하신 우리 주님을 맘껏 찬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 안에 사람들은 한 지체였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웠고, 생전 처음 보는 얼굴들인데 그렇게 다정 다감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나라를 위해, 자기 민족의 구

원을 위해 이렇게 세계 열방 독일에서, 영국에서,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브라질에서, 한국에서 모인 다인종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터키 현지교인들은 벅찬 감사와 감격으로 눈물을 흘리며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배 안에서 한 시간이 지나 드디어 배는 부유아다 섬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선교대는 각 선교단체들의 조율에 따라 7개 지역으로 조를 나누어, 그 지역으로 잠시 후부터 통과할 터키 영혼들을 맞이할 준비를 위해 부유아다의 높은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걸어서 30분 가량 올라 가면서 길가부터 각 조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 미주팀들은 2조 구역에 배정 되었습니다. 전도조, 찬양조, 중보기도조, 그리고 기도자들. 저는 저의 기도를 통역하는 팀으로 멀리 이즈밀에서 달려온 인터컴선교회 파송 대학생 단기선교사(SM)들과 함께 배정되었습니다. 우리는 준비기도를 합심하여 한 후 우리에게 올 영혼들을 기다렸습니다. <계속>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24hr 한국어 서비스
굿모닝 보험 213.761.9990 KEVIN YOO

믿을 수 있는 농협 한삼인
창고대 방출
농협 고려인삼 한삼인 서부총판
1-866-902-8282
www.korginseng.com

홍삼순액
100%홍삼농축액
100g \$90, 240g \$185, 2개 구입시 \$150, 3개 구입시 \$180, 4개 구입시 \$230
2개 구입시 \$370, 3개 구입시 \$555, 4개 구입시 \$450

LOS ANGELES ORT COLLEGE
NON-PROFIT ORGANIZATION ACCREDITED BY ACCET www.LAORT.edu
고소득 직업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정부전액 보조금 지급(유자격자) - ESL Program Only -
상담필수 8:30AM~7:00PM
• 시민권 신청
• 저소득층 메디칼 신청
• FREE Food Stamp
• HEAP(Utility Bill Payment)
• Social Service
• WIA, Childcare, Transportation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 방문비자(B1, B2)를 학생비자 F-1으로 변경 가능
유학생은 ORT학교 졸업 후 워크퍼밋과 소셜NO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Los Angeles : 643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48 (Wilshire+Lajolla)
Van Nuys : 14519 W.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Tel. 818.382.6000
New York : Forest Hills
Chicago : Skokie

# 팜스프링스에 “오병이어의 기적” 재현한 최승목 목사

## “우리가 멕시코교회 지어주니 하나님이 우리 교회 지어주셔”

LA에서 동쪽으로 약 100마일 떨어진, 모래 먼지가 날리는 황량한 사막에서 최근 한인교회 입당 이야기가 들려왔다. 팜스프링스, 이 이름에 어울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솟아난 사건이다.

개척을 하러 LA 땅을 밟은 최승목 목사는 성전 건물을 몰색했다. 그러나 무료로 성전을 빌려주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생활이 어려워 방세를 못내 쫓겨날 처지가 된 그는 개척 대신 청빙을 받기로 했다. 어느 날 기도모임에 참석해 ‘목회자를 주세요’라는 기도제목을 적어서 냈고 다음날 이력서를 냈던 곳에서 모두 연락이 왔다. 그중 팜스프링스 한인감리교회로 결정했다. 당시 성도 수 19명에 불과한 작은 교회였지만 ‘선교하는 교회’로 만들고자 처음에는 심방을, 이후에는 교인들을 데리고 선교를 열심히 다녔다.

2년 전 멕시코에서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 참석한 한 멕시코 목사님으로부터 자기 교회에 와서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그는 그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다. 거기서 그는 스무 명도 채 안 되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 작은 예배당과 8년 동안 철근만 박아 놓은 채 방치돼 온 교회 부지를 목격하게 된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신기한 일이 시작되었다.

CTS TV 방송설교자, 미주복음방송 라디오 진행자, CGNTV 방송설교자, 중앙일보, 코리아 모니터, 크리스천 헤럴드 칼럼니스트, 용인 대화 국제학교와 Dove's Landing School 이사, 미주 감리교 신학대학 교목, 자아개발-리더십 강사. 이 이야기의 주인공 최승목 목사에게 붙는 호칭들이다. 크리스천 언론과 방송에선 이미 잘 알려진 인물인 그는 미디어를 통한 복음 전파에 힘쓰고 있다. 지난주 목요일 방송 녹화를 위해 LA에 온 최승목 목사를 만나 성전입당 과정과 그가 걸어온 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에는 언제 부임했나?

2009년 8월에 부임해 5년이 지났다. 당시 성도수가 어린이까지 합쳐 19명이었으나 현재는 100명 정도며 지성전에는 20명 정도 있다. 이민목회는 10년째다.

- 교회소개를 간단히 한다면.

저희 교회는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며 저는 제3대 목사다. 이 교회 부임 후 선교하는 교회로 만들기 결심했다. 캄보디아, 북한, 중국, 멕시코, 필리핀, 인디안 나바호족 등 1년에 6-8곳을 직접 가서 선교한다. 중국 선교는 신학교를 통해, 멕시코나 인디언은 의료선교, 미용선교 등 다양한 분야로 나

누 선교한다.

-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는 어떤 사역을 하는가?

목회철학은 인카네이션(성육신) 신학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배가 종교적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체험이 되어야 한다. 읍은 ‘눈으로 본다’고 고백했고 요한일서에서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고 했다. 최 목사의 하나님이 성도 자신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교회마다 색깔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정체성이 앞으로 갈 수 없다. 우리 교회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야 하는데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 것도 없었다. ‘돈도 필요 없고 사람도 필요 없는 목회를 하자’는 생각에 심방 목회를 했다. 그 다음에 선교 목회를 시작했다. 선교를 일 년 내내 했다. 한, 두 달에 한 번씩 하니 성도들이 삶의 목적과 가치를 찾았다.

- 성전 구입 과정은?

건물도 기적적으로 주셨다. 2년 전 좁은 멕시코를 갔는데 제가 집회하는 교회에 멕시코 목사님이 참석했다. 집회 끝나고 은혜를 받았으며 자기 교회에 와달라고 하셔서 가보니 20명도 안 되는 작은 교회였다. 거기 큰 땅이 있는데 철근을 박아 놓았다. 교회를 중추하려 했는데 돈이 없어서 8년 간 그 상태로 방치된 것이다. ‘안되겠다. 이것을 우리가 지어 줘야겠다’ 생각에 재료 값을 대주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드렸다. 그 교회가 세워져 축하해 주러 차를 타고 가던 중 한 미국 교회에서 전화가 왔다. “교회를 정리하려 하는데 그 후식 건물을 살 의향이 없느냐”는 전화였다. 다음날 만나서 대화를 나눴는데 “다른 곳으로 이사해 건물을 정리하려 하는데 3에이커에 건물 두 채가 있다”며 “그 건물들을 한 채 가격으로 드리겠다”고 했다.

그 건물 한 채 가격도 드릴 형편이 안 되는데 오너캐리(Owner Carry: 판매가격의 일부에 대해 용자를 해주는 방식)로 준다고 했다. 또 그 교회 안에 미국인 학교가 있는데 렌트비를 우리에게 준다. 결국 보증금을 내고 나머지 용자금은 미국인 학교에서 받아서 갚으면 되게 됐다. 공짜로 들어가게 됐다. 게다가 교회 건물 내 의자, 스피커, 마이크 등 기자재를 다 놔두고 가기로 했다. 몸만 들어가면 된다. ‘우리는 멕시코 교회를 지어주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어주었다.’ 부활절에 들어갔고, 8월 17일에 입당예배를 드렸다. 눈으로 보는 것, 경험하게 하는 것이 내 목

회 철학이다. 우리 교회는 간증이 있고 체험이 있는 교회다. 그래서 교회가 많이 부흥했다.

- 목회자가 된 계기는 무엇인가? 목회의 소명은 언제 받았는가?

사랑하는 은사님이 계시다. 그분이 교회에서 먹고 주무셨다. 저는 처음에 교회가 좋아서 교회에서 지내시는 줄 알았다. 그런데 어머니가 무당이셔서 집에서 쫓겨난 것이었다. 저는 그분이 너무 좋아서 중고등학교 때 그분과 같이 지냈다. 교회 작은 방이 있었는데 집에 가서 밥 먹고 교회로 다시 가서 숙제하고 기도하며 교회에서 생활했다. 어려서부터 그냥 목사가 되고 싶었다.

- 존경하는 목회자나 인물은?

한국중앙교회에 최복규 원로 목사님(한국기독교원로목사회회장)이 계시다. 이분은 아이가 교통사고가 나서 세상을 떠났는데 병원에 가지 않고 강단을 지키셨다. 자녀보다 교회를 더 사랑했던 목사님이다. 모교회의 흥순자 목사님은 평생 결혼하지 않고 혼자 목회하셨다.

제가 같이 생활했던 분은 백향목 목사님이다. 한 번은 누가 구두를 훔쳐가서 고무신을 신고 다니셨다. 고무신이 편해서 신고시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구두 살 돈이 없으셨다. 그런데 한 번은 제 동생이 농구를 하다가 농구공을 잃어버렸다. 동생이 우는 걸 보고 몰래 문방구에 가서 농구공을 사서 땅바닥에 굽고 계셨다. 그리고는 농구공을 찾았으며 동생에게 주셨다. 2001년도에 캐나다에 가서 이분을 보았다. 사모님이 아기를 낳으셔서 처가에서 몸조리하라고 50만원을 줬는데 그 돈 전부를 저에게 주셨다. 제가 안 받았다고 하는데 그 큰 분이 평평 울면서 돈을 던지고 가셨다.

- 목회하며 어떤 어려움을 겪었나?

고생을 많이 했다. 군대에서도 교회 간다고 계속 맞았고 미국 와서도 노숙자가 되기 직전까지 갔다. 그러나 정말 힘든 건 성도들이 불안해하고 믿음을 포기할 때다. 건물 살 때도 성도들에게서 ‘힘들다, 포기해야겠다, 불가능하다’는 말이 나왔을 때 힘들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실 것을 알지만 그분들이 낙담하면 저도 힘들다.

-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가장 중요한 덕목은 실력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청렴한 윤리도 아니고 사랑이다. 그런데 이 사랑은 가슴이 찢

어지는 사랑이다. 십자가에서 몸과 마음이 찢어진 것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없다면 목회자는 안 됐으면 좋겠다. 설교 좀 못해도 실력이 조금 없어도 이것이 있으면 될 것 같다.

- 크리스천들이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받는다. 크리스천들에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먼저는 목회자 자질이 문제다. 공부만으로 참된 목사가 될 수 없다. 성경은 지극히 상식 안에 있다. 불신자들이 왜 기독교에 대한 왜 반감을 갖는가? 상식 밖에 있기 때문이다. 일반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과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이다.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어야 한다. 목사는 둘째치고 사람도 안됐기 때문에 그런 비판이 나온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믿음이 아닌 참 크리스천이 되어야 한다. 바울 사도조차 날마다 내 몸을 처복종케 한다고 고백했다. 그렇게 몸부림을 쳐야 한다.

-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이다. 요한일서 3, 4장을 보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라는 반문이 나온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천국은 너희 마음에 있다고 하셨다. 에덴동산은 기쁨이란 뜻이다. 사람은 원래 기쁨 동산에 살게 만들어졌다.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다. 지금 천국에 가면 육신의 죽음이 그 천국의 삶을 단절시키지 못한다. 지금 천국을 경험하는 자가 죽어서도 천국 가는 것이다. 사는 게 지옥이라면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건지 생각해 봐야 한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고 했다. 부활도 오늘 경험하는 것이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냐’고 묻자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하셨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고 스테반은 돌에 맞았다. 그런데도 항상 기뻐했고 얼굴이 환했다고 나와 있다. 오늘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기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예수가 있



최승목 목사

다는 것이고, 내가 부활했다는 것이고 내게 천국이 임했다는 것이다. 이 기사를 읽는 독자들이 기쁘지 않다면 주님을 다시 만나야 한다.

- 2세 교육과 청년 사역은 어떻게 하고 있나?

교회에 케네디 락커라는 교육전문가가 계시다. 교장을 20년간 하셨고, USC에서 3년간 교수로 계셨다.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크리스천 사립학교를 개척하셨고 교회학교 교육을 담당하신다. 신앙교육은 일주일 한 두 번으로는 부족하다. 인성교육이 지식 교육보다 더 중요하며 인성 교육보다 신앙 교육이 더 중요하다.

\*2004년 7월 생수교회란 이름으로 설립된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는 1대, 2대 담임목사로 라환주 목사, 김양건 목사가 섬겼으며, 2009년 8월 최승목 목사가 담임으로 부임했다. 2012년 “전 세계를 먹여 살리는 교회”, 2013년 “꿈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에 이어 2014년에는 “오병이어 기적이 매일 일어나는 교회”라는 표어 아래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는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선교에 힘쓰고 있다.

▷ 웹사이트: <http://palmsprings.onmam.com>  
▷ 주소 :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92276  
▷ 문의 : 760-636-2675

한 주디 기자

###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안규 편집국장 : 맹토마스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0403 / E-mail : [chdailya@gmail.com](mailto:chdailya@gmail.com)  
Payable to order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 2015년 달력 할인행사

시간이 얼마 없는 관계로 9월19일 까지 마감합니다. 빨리 주문 하셔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디자인의 달력을 준비하세요. 미디어 선교에 앞장서는 믿음의 기업 탐미디어에서 2015년 달력제작으로 귀 교회와 단체를 섬기고자 합니다. 특별할인 품목을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셔서 양질의 달력을 좋은 가격에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섬기시는 교회와 단체위에 더욱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www.topmediausa.com  
다양한 디자인 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벽걸이형 \$ 2.75 부터 (100 Min)**

**탁상용 \$ 3.00 부터 (100 Min)**

**차량용 Special Price**

• 달력뿐 아니라 목회와 선교사역을 위한 모든 미디어용품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전도용 설교, 음악시디, 세미나, 신학교교재용 오디오북, 전도/홍보용 물티슈 각종 인쇄(명함, 카달로그, 주보, 헌금봉투, 각종 포스터, 현수막) 교회, 단체 로고 디자인, 실내외 차량용 사인, 티셔츠, 수건인쇄, 각종 판촉물)

**TOPMEDIAUSA.COM • Call : 323.265.0244 • 3170 East 11th St. LA, CA 90023**

# 니느웨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

## 요나 4:1-11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 1. 요나 선지자에 대한 고찰(考察)

요나는 아맛대의 아들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통치시대(BC793-753)에 활동한 구약시대 선지자로서 최초의 이방 선교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惡毒)이 내 앞에 상달(上達)하였음이니라(요 4:1-2)”고 지시하셨으나 3절 이하 요나는 여호와의 낫을 피하여 옴바로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니느웨의 반대편으로 도망갔으나 여호와께서 폭풍을 크게 일으키사 배가 파선될 때, 사공들이 물건을 바다에 던지고 배를 가볍게 했으나 배가 더욱 위태롭게 됨으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재앙(災殃)이 누구 때문인지를 가려 내기 위해 제비뽑기를 했는데 요나가 뽑혔습니다. 뱃사람들이 요나에게 이 재앙이 무슨 연고(然故)로 우리에게 임했는지 네가 밝히라 했을 때 9절에서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敬畏)하는 자”라고 말하고 10절에 “자기가 여호와와 낫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고 그들은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고 책망(責望)했습니다. 뱃사람들이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잠잠해지겠느냐고 물었을 때 12절에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해야 바다가 잔잔해 질 것이라고 스스로 자신에게 사형언도(死刑宣告)를 내리고 이 큰 폭풍(暴風)은 내 짓값의 결과라고 고백했습니다. 15절 이하에서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고 바다는 곧 잔잔해졌습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니 요나를 삼키게 하였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삼일삼야(三日三夜)를 지내야 했습니다. 2장의 내용을 보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비로소 회개가 터져 나왔고 자기 영혼이 바다 밑바닥을 누비고 산뿌리까지 오르락 내리락 했으나 죽지 않도록 생명을 붙들고 살리시고 계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구원은 여호와께서 말미암는다며 죽을 힘을 다해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고기로 육지에 토하게 하심으로 요나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3장에는 여호와와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가던 요나를 큰 풍광과 고기를 예비하여 회개시키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니느웨로 다시 돌아가게하여 선지자의 선교 사명을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 2. 니느웨의 죄악상(罪惡相)

니느웨는 앗수르의 가장 큰 도시로 창세기 10:11-12에 보면 영걸(英傑) 니므롯이 건설한 성읍들 중 하나이며 메소포타미아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도시로서 둘레가 96km나 되었고 티그리스 강 동편에 있었으며 앗수르 전성기(全盛期)엔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BC 760년경에 요나가 니느웨를 방문했다는 기록이 앗수르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었고 그 당시 앗수르 왕은 앗수르탄 3세(BC 771-754)로 그 당시 인구는 약 60만이었다고 합니다. 요나 1:2에서 “니느웨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고 하시면서 요나에게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하셨습니다.

그 죄악들은 크게 3가지로 윤리적인 죄(罪)로 주색잡기(酒色雜技)로 방탕(放蕩)했고 사회계급간 강포(強暴)의 죄와 우상숭배(偶像崇拜)의 죄로 심판(審判)에 대한 사전(事前) 경고(警告)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 실 예로 앗수르는 나약한 왕들의 쇠국정책(鎖國政策)으로 국력이 쇠약(衰弱)해졌고 BC 768년 6월에는 일식(日蝕)으로 백성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도 하였고, BC 765년에는 전염병이 전국을 휩쓸어 인명과 가축에 많은 죽음을 겪게도 하였으나 그들은 도무지 회개할 줄 모른채 계속해서 같은 죄악을 일삼았기 때문에 대심판의 경고를 내리시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니느웨는 3일길을 걸어야 통과할 수 있을 만큼 큰 도시인데다 막강한 경제력으로 부강했으며(사20:4 참조) 뛰어난 건축물로 호화(豪華)한 주거문화를 자랑했지만 역사가 밝혀왔듯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이 부강하게 되면 음란방탕하거나 강포(強暴)로 객기(客氣)를 일삼게 되거나 부귀영화에 대한 상실(喪失) 불안감 때문인지 미신우상(迷信偶像)을 정신없이 섬김으로 멸망을 재촉하는 사례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죄악상도 예외가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두렵기 지 않습니다. 나훔 선지를 통한 예언에도 “화 있을진저 피성이여 그 속에서는 궤함과 강포가 가득하며 늑탈이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확확 하는 책적 소리, 굉굉 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살륙당한 때, 큰 무더기 주검,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魔術)의 주인 된 아리따운 기생이 음행을 많이 함을 인함이라 그가 그 음행으로 열국(列國)을 미혹하고 그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니라 만군의 여호와와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서 네 치마를 걷어쳐 네 얼굴에 이르게 하고 네 벌거벗은 것을 열국이 보이며 네 부끄러운 곳을 열방에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을 네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로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네게서 도망하며 이리기를 니느웨가 황무하였도다 누가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하시도다(나 3:1-7)” 하셨으나 로마서 2:5의 말씀처럼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심과 같았던 것입니다.

### 3. 요나가 니느웨의 구원을 원치 않았던 이유

오래도록 역사 속에서 앗수르는 여러 차례 이스라엘을 침공했으며 사람들을 사로잡아 갖고 재산을 약탈했습니다. 그 앗수르의 대도시 니느웨를 구원해 주시려고, 가서 회개시키라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요나는 이해하지 못한 채 내심(內心)으로는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기를 소원(所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죽을 지경에 처하여 회개하고 여호와와 명령을 수행할 것을 서원했기에 다시 살아 나와서 “요나가 여호와와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임으로 삼일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3:3-4)” 했고 5절 이하에선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왕과 백성들과 짐승들까지 금식을 선포하고 전적으로 애통하고 자복(自服)하기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죄악을 떠나 악한 길에서 돌이킨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재앙 대신 긍휼의 은혜와 용서로 그 성을 멸하지 않으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의 편견은 아직도 변함이 없어 성을 떠나 언덕에 초막을 짓고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되는 모습을 보기 원하면서 말로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仁愛)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줄을 알았다”고 하고, 동시에 4:3에서는 “여호와여 원컨대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은이니이다”라고 오도방정을 펼쳤습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는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나”시며 6절에 “여호와께서 박 넉줄을 준비하시나 요나 위에 햇빛을 가리워지게 해주셨습니다. 요나는 박 넉줄 그늘을 크게 기뻐했습니다. 7절에 “하나님이 다시 벌레를 시켜 요나가 그토록 기뻐했던 박 넉줄을 씹어 버리게 하시니 박 넉줄이 금방 시들어 그늘이 없었으므로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시므로 요나가 혼곤하다며 스스로 죽기를 청하였다”했습니다. 요나가 구약 선지자들 중 처음으로 해외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편견에 고착(固着)되어 선교지 주민의 영혼을 사랑할 줄 몰랐고 지나칠 정도로 자기육신의 안일무사주의(安逸無事主義)와 이기적 처세로 일관하는 모습에서 오늘의 한국 교회가, 특히 선교사들이 많은 것을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요?

9절에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 넉줄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나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찌라도 합당하니이다”라고 했을 때 10-11절에 “여호

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培養)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낫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 넉줄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십이만여 명이었도다 죽을 자가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나”하심으로 긍휼과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은 죄인들을 보실 때 심판으로 멸망시킬 것보다는 회개시켜 구원해 주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같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선교 사명을 저버리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를 거센 파도로 길을 막으셨고, 제비뽑기로 걸리게 하시며 스스로의 죄를 공개자백하게 하셨으며 스스로 사형언도를 내려 바다에 던져 달라 하게 되었지만 큰 고기를 예비하시니 통째로 삼키게 하시니 고기 뱃속에서 3일을 회개하게 하심으로 선교 사명에 복종하게 만드셔서 기어코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경고하게 하셨습니다. 니느웨가 금식하며 회개하고 불의와 죄악에서 떠난 것을 보시고 심판을 돌이켜 용서와 구원으로 바꾸셨는데 원수시 해 온 니느웨의 구원을 너무나 못마땅해 하는 자기의 종 칠부지 요나를 박 넉줄과 벌레와 뜨거운 동풍들의 체험을 통하여 영혼의 가치와 선교 사명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무한하신 사랑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얻은 사람만이 지옥 형벌을 면케 된 감격적인 기쁨을 이기지 못해 눈물로 감사드리며 주변에 지옥가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야겠다는 성령의 뜨거운 감동으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알고 또 뜨겁게 사랑하여 모든 것을 투자하고 희생하면서 죽음까지도 불사(不辭)하고 복음의 제물이 될 수 있는 법입니다.

고린도전서 9:14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하셨습니다. 이처럼 요나가 선교 사명을 실천했을 때 니느웨도 살렸고 자신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국 선교 설교			
T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크리스천 투데이	7면 설교 / 동영상·인터넷신문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경복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T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7시	목요일 낮 12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7시 / 동영상 설교 제공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미국 신문 설교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AM1310 기본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크리스천 헤럴드	7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 2014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인간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1-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호라이즌대학교**  
학위취득 과정 및 학생모집 학과  
학사: 신학/ 상담학  
석사: 신학/ 목회학/ 상담학  
박사: 신학/ 상담학

CA 정정부 교육국 BPPE 인가  
연방정부 승인 SEVIS 1-20 자체 발행  
520 S.La Fayette Park Pl. #411 LA, CA 90057  
Tel. 213) 736-5000 Fax. 213)736-5115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정회원 인준  
특전: Sovs 4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솔로몬 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어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와 ATS 정회원)

Dr. Hoi Chang Kim: (213) 268-9367  
hoichangkim@hanmail.net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S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

**통신신학 \*한국상고사(한단고, 규원사학)**  
- 신학(학사, 석사, 종교철학박사 전공) .  
- 한국상고사(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전공은 일제 식민사학(단국신학)이 아닌 전통역사사 한단고, 규원사학 중심으로 학사, 석사, 박사 단계 완성 가능함.

\*본교는 캘리포니아 Education cord #94874 비영리종교법인(연방 501C3)에 의해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한국장로교단 미주노회에서 남녀 목사안수 가능함.

아메리칸 중앙대학교 중앙신학대학원 www.acus-edu.us  
mail, 379 Loa drive #301 L.A, CA 90017 paul Lim : 213-908-8986  
email : acus-edu@hotmail.com / acus1mjeongul@gmail.com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김연도 박사(D.P.M.) 총장 김근수 박사(Th.M., Ph.D.)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100 e-mail : info@chongshinusua.edu  
www.chongshinusua.edu

**미주성결대학교**  
한국성결교회 100년,  
미주성결교회 30년,  
미래를 책임지는 미주성결대학교!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i.us



# 반주자 청빙

**자 격:** 세례교인으로 피아노 전공자  
미국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제출서류:** 이력서, 신앙 간증문

**보내실곳:** info@sunhanchurch.com

**문 의:** 선한목자장로교회 사무실  
626-965-3443

\* 서류는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선한목자장로교회**  
Good Shepherd Presbyterian Church

1816 S. 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 정서적 전염



김지성 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심리학에서 자주 쓰는 용어로 Emotional Contagion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표현하자면 '정서적 전염'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감정이나 정서는 전염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불안한 생각이 들게 되고, 밝고 긍정적인 사람의 옆에 있으면 덩달아 밝고 긍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분위기는 바로 '정서적 전염'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언젠가 TV에서 '웃음 세미나'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웃음을 잃어버린 시대가 안타까워, 웃음을 만드는 일에 뛰어 들었다는 강사는 웃음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다 같이 함께 웃자고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청중들 가운데서 가장 웃고 싶지 않은 한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환한 미소를 지어보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쭈뼛쭈뼛 어색해 하던 그 사람은 강사의 강한 권유에 못이겨 어색한 웃음을 지어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이 재미있었던 그 사람을 바라보던 청중들은 하나 둘씩 웃기 시작했고, 곧 이어서 그 웃음은 잠재울 수 없는 강한 폭소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서적 전염'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정서적 전염'이 강한 곳입니다. 긍정적인 말이든, 부정적인 말이든 교회 안에서 그 전염의 속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릅니다.

그래서 말 한 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심사숙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는 '정서적 전염'에 민감합니다. 교회의 최종 리더십에 속해 있는 이유로 저의 얼굴 표정, 언어, 행동은 교회 전체에 큰 영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나도 모르게 만들어지는 힘든 표정을 애써 감추려고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한없이 소리치며 울고 싶어도 그 울음을 돌이켜 삼켜야만 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정서적 전염'의 단초를 제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정서적 전염'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자칫하면 무거워질 수 있는 교회의 분위기를 긍정적 자세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전염'을 시키는 것은 교회를 위하여 유익한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들

은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지체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의 몸을 구성하는 지체라는 말입니다. 웰빙을 추구하는 이 시대 사람들은 자신의 몸에 유익이 되는 것만을 고집합니다. 해가 되는 것은 가까이 하려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지체인 우리 자신들이 교회를 위해서 좋은 것을 취해야 함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정적 방향의 정서적 전염'을 긍정해야 하는 것이 어찌 저 한 사람만의 일이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모두의 일이 되어야 함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비판을 삼가야 합니다. 말이 좋아 유익한 비판이지 그런 비판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에 한 마디 한다고 말하지 맙시다.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면 말없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백 번 낫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비판을 할 줄 몰라 조용한 것이 아닙니다. '부정적 방향의 정서적 전염'을 우려하기에 그리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창조적이며 긍정적인 모습'들이 전염될 수 있길 소원합니다. 교회는 함께 책임지고,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란 권리와 책임을 공유하는 곳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의 긍정적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최종의 책임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 성경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성경공부를 통해 영성과 인성교육을 하며, 골프를 통해 집중력과 체력향상을 시켜줍니다. 귀한 자녀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는 전문인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달라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 픽업가능

■ 성인을 위한 무료 골프교실도 오픈합니다. (성경공부 필수)

■ 문의 : 최 제이콕 Professional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최 제이콕>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선교학 Ph.D

## 구원의 여정



민중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자신의 구원유무를 모른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원의 확신"이란 말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안다'는 말입니다. 우리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바탕은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입니다(롬 8:28).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믿는 것에 있습니다(요 1:12-13, 3:16). 신자를 자녀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God's purpose)"이 우리 구원의 바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뜻 안에 있는 사람은 다음의 경로를 거쳐서 구원의 완성이 시작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미리 아심(foreknowledge)", 곧 하나님의 예지(豫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으로 사랑한 것입니다. 만세 전에 주님이 나를 아셨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즐거움으로 아신 나를 "미리 정하심," 곧 예정(predes- tination)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나의 행위와 관련이 없습니

다. 하나님은 선하신 뜻으로 나를 아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을 것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 결정이 우리를 운명론으로 이끌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우리의 모든 의지적 결단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나 예정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이 구원의 계획은 역사의 전개과정을 따라서 나타납니다.

셋째로 예정의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calling)"의 하나님이라는 점입니다. 성령의 내적인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들

은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넷째는 부르심에 대하여 반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칭의(稱義, justification)"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보고 의롭다 여기십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미래의 영광스러움에 이르기 전에 의인이 현 세상에서 변화되어 나가는 것이 성화(聖化, sanctification)입니다. 여기서는 그 성화의 과정이 빠진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형상을 본 받는다"(롬 8:29)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째는 시작된 신자의 영광스러움이 완성되는 영화(glorification)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3:30의 의롭다 하신 성도를 또한 "영화롭게 하였다(glorified)"는 과거의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시작된 성화가 반드시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성화는 시작된 영화요, 영화는 완성된 성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진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존 비버가 쓴 <은혜>라는 책에 보면 인간은 누구나 세 가지 이미지가 있다고 합니다. 투사 이미지(Projected image), 지각 이미지(Perceived image), 그리고 실제 이미지(Actual image)입니다. 투사 이미지는 내가 바라는, 남들이 나를 이렇게 보았으면 하는 이미지이고, 지각 이미지는 남들이 나를 인식하는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미지는 바로 실제의 내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지각 이미지로 거부했습니다. 당시 권력자들은 그분에 대해 거짓말을 했고, 지배층은 그분을 이단이나 심지어 귀신들린 자로 취급했습니다. 실체들은 그분을 비방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지각 이미지는 십자가에 죽어야 할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실제 이미지는 전혀 달랐습니다. 성경은 그분이 아버지를 꼭 닮았다고 말씀하시고,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요14:9)"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심판하려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인식하는 예수님의 지각 이미지에 치중했지만, 하나님은 항상 예수님의 실제 이미지만 보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체면 문화 영향을 많이 받은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남들이 나를 이

렇게 보이게 했으면 하는 투사 이미지를 위해서 가면을 쓰고 살기가 쉽습니다. 다른 사람들만 나타나면 태도가 갑자기 짐작게 달라지고 교회만 오면 목소리가 달라지는 사람들이 주로 그런 투사 이미지를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남들에게 높이 평가받는 모습으로 자신을 투사하는 사람은 늘 외모, 지위나 직분, 체면, 자기 자존심 등을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은 지각 이미지, 투사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 이미지를 보십니다.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들의 평판이 아니라 내 마음의 동기를 따라 사는 실제 이미지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 이미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속을 훑고 들어가 나의 깊은 것이라도 판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놓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히 4:12-13)"

크게 말하면 말씀이 복음이고 말씀은 진리이며 기독교 신앙의 헌법입니다. 물론 믿음도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알면 알수록 인생 피로감이 줄어들고 자유함은 넘쳐나게 됩니다. 오히려 말씀을 잘 모를 때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해 두렵고, 진리를 모르니 답답하고, 생명이 없으니 피로감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중심에 들어오면 점점 실제 이미지의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미혹의 시대에는 올바른 분별과 해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 '실제 이미지'로 살아야 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 놓고 정작 불편할 때는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는 그 자리를 떠나는 식으로 하나님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만이 진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 이정운 CPA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
-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및 고객 데이터베이스 구축
- IRS, FTB, SBOE, EDD 세금문제해결
- 저소득층 세금환불(ETC)
- PTN(개인납세자번호)신청 및 공증
- FAFSA, 소셜연금, 해외자산신고 상담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Tel (213)387-2004**

www.cyleecpa.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 토요일 10 am -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혈액 해독 / 기력회복

천연 항염, 혈관 탄력

심장, 뇌 혈전용해

뼈, 골수 영양공급

## 권장소비자가격: \$184/병

눈으로 직접 확인 하세요!

병치료와 장수의 시작은 피를 맑게 하여 알칼리화 시키는데 있습니다



셀라케어 제품은 6년 경작후 1년 휴지기를 지키면서 유기농으로 재배한 작물을 엄선하여 우리몸에 흡수가 잘 되는 알칼리성으로 만듭니다. 많은 영양제중 M3만이 알칼리 테스트(PH Test)에서 최고 품질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 신비한기적의영양제 M3® 세트

- 좋은 흙에서 나온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 체내 흡수가 빠르므로 복용 효과가 높습니다. (1-3일 내)
-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함으로서 무슨 병이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세계 특허(특허번호 51281391) 공법으로 제조되어서 복용 후 체내 흡수율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흡수율 92-96%)
- 셀라케어의 모든 제품은 남녀노소 모두 복용가능합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 셀라케어

# SELLA CARE®

### 셀라케어 효능사례

### 무슨 병에 걸렸는지 큰 효과를 줄수 있는 신비한기적의 영양제!

발작, 자폐증, 무감각증	시력장애인으로 태어나 무감각증으로 폐인 상태. 셀라케어 복용 후 완치되어 등산도 다닐 정도입니다. <b>방세환(20세, 원주) 010-5599-2633</b>
대장암 말기	대장암 말기에서 간으로 전이된 상태, 2달 복용후 정상으로 회복됨
위암 3기	카이저 병원에서 수술을 권했는데 M3셋트를 3개월 먹고나서 암수치 1.36으로 정상으로 돌아와서 수술을 하지 않게 되었음. <b>Mr.박(72세, 엘에이) 213-268-8381</b>
심한 부정맥, 해소, 천식	심장수술을 받은 분으로 3일 복용 후 상태가 많이 호전됐음. 30년이상 기관지 천식과 심한 부정맥으로 고생했으나, 셀라케어 복용 후 정상으로 돌아옴. <b>박옥현(77세)</b>
유방암 완치 후 모유수유	오른쪽 유방암으로 간, 폐, 골수까지 전이된 상태에서 두 달 동안 양의 M3셋트를 주스에 같이 복용 후 심한 호전 반응 겪고 완치됨. 그후 4년뒤 늦둥이를 출산하여 지금 모유수유를 할 정도로 완벽. <b>양호연(42세, 엘에이) 213-215-6991</b>
간질과 약물중독	16년동안 하루에 몇번씩 간질발작을 해서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했는데, 지금은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함. 간질중에도 호전됨. 복용 후 190kg가 125kg로 되고 시력, 피부, 머리카락 좋아짐. <b>오윤희(26세, CA가디나) 213-604-1992</b>
직장암, 대장암 말기	처음에 수술이 불가능하였으나, 복용 후 대장암에 있었던 숙변이 피와 함께 쏟아지면서 몸에 있던 큰 혹들이 줄어들며, 복용 후 6개월 후에는 깨끗하게 치료됨. <b>이순남(77세, 엘에이) 323-533-0624</b>
심한 아토피	6년동안 심한 아토피로 고생이 심했는데 복용 1개월 후 부터 피부가 깨끗해지며 정도 잘 자고 키도 많이 컸고 정신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었음. <b>에스터 양(10세, 산타모니카) 213-215-6991</b>
대장암	대장암 초기판정을 받았고 병원 치료를 받던 중 M3셋트를 먹기 시작, 수술하지 않고 복용 석달 후 완치 되었음. <b>한국 010-7928-7986</b>
비만, 우울증, 야뇨증	어려서부터 심한 비만으로 11세에 체중이 190파운드 였으나 셀라케어 복용 2달후부터 살이 빠지기 시작 하면서 현재는 130파운드로 유지됨. 우울증, 야뇨증이 깨끗하게 치유 되었음. <b>샘 양(15세, 엘에이) 213-219-7746</b>
심한 당뇨, 고혈압	30년된 고혈압과 당뇨로 매일 약을 먹던 중 M3셋트 복용 후 4개월이 지나면서 혈압과 당도가 정상으로 되었고, 절단직전의 다리과 온몸의 검은 피부가 회복되었음. <b>오일영(52세, 가디나)</b>
심한 알zheimer, 우울증, 불면증, 녹내장	코카콜라 쿨롱을 빙글 새우는 고령 중 M3셋트 복용 3달 후 완치. 심한 심장 압박과 하지정맥까지도 치유됨. <b>정수지(61세, 베버리 힐) 310-800-8242</b>
심장병, 담석, 전립선	10년 동안 고혈압과 밤마다 잦은뇨와 다리가 저려서 고생했는데 셀라케어 복용 후 약성 빈혈과 혈압이 정상으로 되고 담석으로 인한 고통도 사라졌습니다. <b>마사루(58세, 부산)</b>
심한관절염, 변비, 생리통	손가락이 심하게 아파 소염 진통제로도 잘 안들었으나 셀라케어로 통증이 가셨고 변비도 해결 되었으며, 큰 딸의 생리통과 우울증도 사라졌음. <b>황정희(39세, 팔로스버디스)</b>
중풍마비, 당뇨, 고혈압	15년 동안의 고혈압, 당뇨를 딸의 권유로 셀라케어 복용 후 7개월 만에 고혈압, 당뇨, 왼쪽 마비도 정상 회복됨. <b>민현자(65세, 방배동)</b>
등 수술후 심한 손떨림	바이러스 침투로 인한 등 수술 후 8년 동안 심한 손 떨림으로 고생중, 복용 일주일 후 부터 혼자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손 떨림이 없어지고 안정됨. <b>박성섭(63세, CA 토렌스)</b>
자폐증	가족과 의사 소통이 되지 않으며 손발이 항상 차고 손발끝이 나무 같이 딱딱 했는데 복용 열흘 후 부터 손발이 따뜻하고 부드러워 졌으며, 가족과 의사 소통이 가능 해지고 상태 좋아짐. <b>정대진(16세, 엘에이)</b>
체장암 말기	60세 중년에 가장 힘든다는 체장암 말기로 병원에서 두 달 시한부 선고를 받고 M3셋트를 복용하고 2개월이 지나면서 부터 기적적으로 체장의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왔음. <b>피터 리(65세, 엘에이)</b>
폐암 말기	50세에 찾아 온 암으로 고통 받던 중 복용한지 한달 20일 후 부터 암 수치가 3.5cm에서 1.2cm로 작아지면서 좋아지기 시작하여 5개월 후에는 암 크기가 30%로 작아졌음. <b>이정수(51세, 서울)</b>
자가 면역 질환	허구병으로 부종, 부분적인 감각 상실, 지속적인 종기, 결국은 폐가 굳어지는 불치병으로 M3복용 3일 후 피검사 결과 혈액수치 정상으로 나온 후 한달 복용 후 모두 정상으로 돌아옴. <b>미세스 락(뉴저지)</b>
모유 아주적음, 심한부종	모유수유가 안되어 애를 먹었는데, 셀라케어 복용 후 모유가 더 잘 나오며 심했던 부종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으며, 신생아도 변을 잘 보고 잘 자고 푹들해졌음. <b>이은영(32세, 세리토스)</b>
혈액투석	1주일에 3번씩 2년 6개월동안 혈액투석 해 왔는데, 2달 복용 후 혈액투석 횟수가 점점 줄었고, 지금은 혈액투석을 아니함. <b>장영순(53세, 한국 서울)</b>
중풍으로 인한 마비	심한 중풍 후유증으로 고생하며 인생 말년에 찾아온 병으로 비관하며 좋다는 약을 찾던 중 M3셋트를 알게되어 복용 한지 3개월 후 부터 서서히 중풍으로 인한 마비가 풀려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음. <b>김정훈(76세, 한국 대구)</b>
임파선암	2년전 임파선 암 수술했음. 셀라케어 복용 후 한 달 20일만에 왼쪽 가슴 유두에서 피고름이 나왔으며, 지금은 키모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회복 됨. <b>조인숙(53세, 시카고)</b>
갑상선암과 심한 관절염	13년동안 심한 관절염으로 신문 한정도 들기가 어려웠고 밤에는 불면증으로 고생. 셀라케어 한달 복용 후부터 심했던 통증이 차차 가라 않고 갑상선도 정상으로 회복 되었음. <b>김정연(39세, 다이아몬드 바)</b>
전립선암과 부정맥	숙변이 힘들고 밤에는 7번씩 소변을보았으며, 심한 부정맥으로 고생 하였음. 복용 2달만에 밤에 화장실 가지 않게 되고 혈액 검사 때마다 혈관 찾기가 힘들었으나 지금은 혈액 흐름이 원활하여 계속 복용하고 있음. <b>필립 남(72세, 벨리)</b>
파킨스 병	3일 복용 후 몸이 가벼워지며 계속 복용하면서 자유로운 외출과 친양 사역자로 다시 일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지금은 외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됨. <b>브라이언 김(70세, 버지니아)</b>
반신불수	목사님 이었고 5번의 뇌수술 후 반신불수가 되었는데, 복용 2개월만에 지팡이도 버리고 걸어도 되고 있음. 왼쪽 마비도 많이 풀렸음. <b>최정석(50세, 엘에이)</b>

### 건강과 성경 이야기 18

백혈병이라고 부르는 혈액암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혈액은 식생활에서 섭취한 영양소나 밖으로부터 흡수된 공기 중의 산소를 각 기관이나 생체 조직세포에 운반 공급하고, 체내의 노폐물과 몸 안에서 태워진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내보내주는 일을 합니다. 수분과 단백질, 미네랄, 포도당, 지방 등의 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혈구는 백혈구와 적혈구 그리고 혈소판으로 되어 있는데, 백혈구는 우리 몸에 침입한 나쁜균을 잡아먹는다고 해서 식세포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면 상처가 났을 때, 그 상처 부위에 진물이 진득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더 이상 상처가 번지지 않게 방어하면서 상처를 치유해가는 것입니다. 백혈병이란 혈액 속에 백혈구가 산소의 결핍으로 인하여 비정상적으로 증식되는 특수한 현상을 말합니다. 백혈병의 일반적인 초기 증상은 몸이 쇠약해지면서 식욕이 떨어지고, 자주 열이 나며, 무력감을 느낍니다. 또한 조금만 활동을 해도 쉽게 숨이 차고, 심장박동이 빨라지며, 빈혈로 인해 쉽게 피곤해집니다. 감기에 잘 걸리고 증기 같은 것도 잘 생기고, 또 증기가 생기면 오랫동안 낫지 않는 경우가 많고, 넓은 부위가 붉으며, 고름이 잘 없어지지 않고, 목의 양쪽 림프선이 붓고 코피가 잘 나고, 한번 출혈이 시작되면 좀처럼 멎지 않아서 고생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병들의 치료가 가능 할까요? 여기서 성경을 잠시 살펴보고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사기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징계-회개-구원-그리고 또다시 타락의 길을 걸어왔던 삶을 보게됩니다. 모세, 여호수아 그뒤를 이어서 많은 사사들 중에서 드보라 이후에,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미디안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곡식을 심어 놓으면 추수할때에 미디안 족속들이 모든 징송들과 함께 올라와서 곡식을 전부 먹어버린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청을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세워서 삼백명의 용사로 삼지만만 이상의 적군들을 물리치게 하십

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기드온은 자기 마을에 세워져 있던 우상을 없애고, 자기가 적군을 이길수있다는 증표를 구하기도 합니다. 6장23,2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말라 죽지 아니하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살롬을 번역하면 하나님의 평화 또는 평강이라고 합니다. 다전장을 하려면 무기가 있어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밤11경에 나팔과 함아리 그리고 횃불로 적군을 놀라게 해서, 적군끼리 서로 죽이게하여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게 합니다. 기드온이 살아있었던 40년동안 이스라엘은 태평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다시 백혈병 치료로 돌아가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병들의 치료가 가능 할까요? 암세포를 치료하는 과정을 지켜보면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그 조직을 파괴 하겠다고 방사선을 인체에 쏘이는데, 암세포를 태워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꼭 암세포만 골라서 방사선을 쏘일 수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못하다면 위험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암세포보다 그 주위에 있는 정상 세포들이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암이 발생한 부위뿐만 아니라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반대 잡자고 초기사망이 태우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는 우리 몸의 자연치유력을 회복시키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치유력이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주는 것인데 신진대사를 촉진시킨다는 것은 혈액 속에 산소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탁하고 흐려진 혈액을 맑게 하여 적혈구의 생성을 돕는 것입니다. 좋은 흙에서 나온 미네랄을 드시고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시는 것이 혈액순환을 유도하면서 피를 정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1달 후에는 눈에 띄게 좋아진 자신을 보게 됩니다. 무슨병에 걸렸는지 큰 효과를 주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M3 유태인 특수 영양제-M3 하나님께서 **죽지않으리라**고 하신 말씀을 붙들고 꼭 한번 드셔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무료건강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 구입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입니다. 감사합니다.

무료건강상담 문의 213-435-9600

셀라케어 제품은 유태인 코셔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미국제품으로 미국 FDA인증의 GMP생산물입니다. [www.sellacare.com](http://www.sellacare.com)

본사(LA)	213.435.9600	뉴서울호텔 (팔달)	213.386.5310	플러튼 베스트케어약국	714.670.7979	뉴욕-뉴저지 (동부총판)	201.983.8333
시온약국	213.382.6485	LA별론 마틴약국	213.382.9718	에나하임	714.469.5809	버지니아	703.684.9199
LA 아드모아약국	213.385.2135	LA별론 갤러리아마켓약국	213.388.4100	다이아몬드바 JJ 약국	909.595.4003	시애틀	206.331.6655
LA 한국마켓약국	323.464.3925	가주건강종합백화점	213.388.0091	H 마트 내 H 헬스 (다이아몬드바)	909.594.6370	씨애틀 (건강마을)	206.229.5466
LA 베스트약국	213.385.9926	가디나	714.351.0440	랜초쿠카몽가	909.987.9500	세크라멘토,아리조나	602.332.6492
우리약국 (우리종합병원내)	213.384.6323	글렌데일 한국마켓 약국	818.637.7708	얼바인	949.330.9009	센루이스,캔사스	314.570.9629
에스약국	323.733.7788	벨리	818.642.8223	H 마트 내 H 헬스 (얼바인)	949.251.0193	하와이(생약촌)	808.947.8086
올림픽갤러리아마켓약국	323.733.7200	벨리 소망 약국	818.832.2757	놀렉 H 마트 리빙헬스	562.402.8859	하와이 총판	808.359.3376
LA 다운타운	213.798.3333	오렌지카운티	714.795.1540	파이오니어약국 (세리토스)	562.402.6972	시카고 서울마켓 (헬렌)	847.877.6346
LA시온마켓엄마손약국	213.739.3030	부에나파크 종로로리기구	714.530.8275	세리토스 그린라이프	562.402.6970	조지아 (발아건강식품)	770.457.1717
LA 6가 버질약국	213.384.1200	가든그로브 건강마을	714.636.2588	그린랜드 건강헬스 (그린마켓 내)	626.839.2868	텍사스 (로얄백화점)	972.620.2900
LA 사랑방	213.351.9552	시온마켓 내 시온헬스	714.730.2707	로렌하이츠	626.912.5727	플로리다	770.457.1717
LA내처영양센터	213.739.8874	플러튼 내처영양센터	714.690.0120	지구촌약국 (H마트 내)	213.820.1469	캐나다	604.872.1669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15:7)

# “청년들, 어렵고 낮은 자 위한 감동의 삶 살아야”

## 하늘 열리고 땅 하나되는 2014 성령한국 청년대회... 뜨거운 기도와 찬양으로 넘쳐나



체육관을 가득 메운 청년들의 모습

23일 오후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4 성령한국 청년대회(청년대회)'는 주님께 부르짖는 젊은이들의 열정과 합성으로 그야말로 '은혜의 도가니'이자 '축제의 장'이었다. '하늘이 열리고 땅이 하나되는 십자가의 은혜'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청년대회는 초교파 연합집회로 치러져 약 2만여 명의 청년들이 참석했

다. 이날 청년들은 하나님의 '비전'과 남북한 통일시대를 두고 뜨겁게 기도하며, 은혜와 성령 임재를 간절히 갈망했다. 또 청년대회에서는 통일을 위해 정기적으로 재정을 준비하는 '통일 통장'을 개설하자는 캠페인도 전개됐고, '헌신 1440팀'이 구성돼 대회 준비와 관련된 실질적인 헌신과 봉사(안내

및 콰이어) 등을 담당했다. 청년대회는 하늘이 열리고(The Spirit), 땅이 하나되는(The One), 십자가의 은혜(The Cross)라는 주제로 나눠져, 각 주제별로 유다지파, Companion Worship, Holy Impact, R3 Worship 등의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한 후, 말씀선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체육관을 가득 메운 청년들은 '성령의 바람', '그날까지' 등의 찬양을 열정적으로 부르며 합성을 질렀고, 감사 목회자의 메시지에 열렬히 호응하며 '아멘'으로 화답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서울연회 감독 김영현 목사의 개회사에 이어, 메시지를 전한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을 꿀 수 있다"며 "거룩한 꿈을 통해 하나님이 축복된 길로 이끌 것이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젊은이들을 격려했다. 이 목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라고 간구한 뒤, "하나님은 결국 이 나라를 바꾸시고, 통일의 그날도 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모든 문제와 어려움, 탐욕과 모든 세속의 죄악은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며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능력으로, 위대한 승리자의 삶을 살길 바란다"고 권면했다. '그날까지선교연합'의 손인식 목사(베델한인교회 은퇴)는 "인류 역사에서 최대의 감동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주신 것"이라며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위해 낮아지시고, 자신이 한 알의 밀알로 바쳐진 사건"이라고 전했다. 손 목사는 이어 "이 나라가 절망적이라고 말하지만,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의 악한 법을 뒤집고 하나님의 법으로 산다면 이 땅은 다시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손 목사는 또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을 위해 살며, 자유를 누리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그렇지 못한 자들을 위해 살아야 한다"며 "우리는 북한동포들처럼 자유가 없어 말할 수 없는 자들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권력을 가진 높은 자들이 낮은 자들을 위해, 고난 받고 희생해야 한다"면서 "불쌍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해 헌신할 때, 이 땅은 변화될 것"이라고 전하고 "왜 감동을 찾아 헤매고 다니는가. 주님은 '나 자신이 그렇게 되라고 하신다. 나로 인해, 우리로 인해, 이 민족이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 당부했다. 이후 청년대회는 꿈의교회 김학중 목사의 메시지와 광림교회 김정석 목사의 Calling(부르심), 기감 감독회장 전용재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동윤 기자

### 한국성지순례 통합지원센터 개소... “보존·홍보 등 지원”



개소식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 내 기독교 성지의 보존과 홍보를 위한 '한국성지순례 통합지원센터'가 개소했다. 돌봄성지순례선교회(대표 조태규 목사), (주)돌봄여행사(대표 김정관 집사), (주)이원관광여행사(대표이사 정철)는 23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 상동에 위치한 동 센터 사무실에서 개소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통합지원센터 부장 엄두열 집사의 사회, 오영복 목사(인천고잔교회 담임)의 대표기도, 정인찬 목사(백석신학교 학장, 한국성지순례 통합지원센터 고문)의 말씀 선포, 조태규 목사의 주요 사업 설명, 임병진 목사(디바인교회 담임)의 축사, 김정관 집사의 인사 및 광고, 조태규 목사의 축도로 진행됐다. 돌봄성지순례선교회 대표 조태규 목사는 "한국에도 기독교 순교지가 있음에도, 그동안 한국교회는 국외에만 관심을 가지고 성지순례를 하

고 있었다"며 "성지순례선교회에서는 신앙의 순결을 지킨 선진들의 순교지와 기독교 선교유적지를 보존하고 널리 알려 성도들을 순례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신앙을 더욱 성숙하게 하고 강건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주요 사업으로 ▲국내 성지를 보존하고 홍보하는 일을 지원 ▲국내에 알려지지 않은 성지 발굴하는 데 재정 지원 ▲초기 신앙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지원 ▲선교사 후손들에 대한 장학사업 추진 및 지원 ▲국내 미자립 또는 도서 지역 교회 지원 등을 꼽았다. '성전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시 65:1-5)를 주제로 설교한 정인찬 목사는 "우리는 성지순례라고 하면 보통 외국에 있는 지역들만 생각하고, 국내에 있는 성지와 그곳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경향이 많다"며 "그러나 이렇게

귀한 뜻을 가진 분들이 모여 한국성지순례 통합지원센터를 세우시게 된 것에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성지는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땅이며, 이를 순례하는 것은 하나님의 행적을 친히 체험하는 것이요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 센터의 센터장 역할을 맡게 된 김정관 (주)돌봄여행사 대표는 "한국 기독교 초기에 믿음의 선배들이 지녔던 아름답고 숭고한 신앙과 사역, 순교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전달되어,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그 분들만큼 아름다운 신앙을 지니게 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며 "한국교회 순교자기념사업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기독교 성지순례 활성화를 통해 기독교인의 신앙뿐 아니라 기독교 성지 또한 한층 아름답게 가꿔갈 것"이라고 했다. 임병진 목사는 "제가 문준경 전도사 성지 개발에 참여하고 여러 국내 성지를 순례하며 느낀 점은, 한국교회가 지금과 같이 초라해진 이유가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죽기 위해 목회했고, 우리는 살기 위해 목회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이 센터가 세워진 것이 매우 고무적이고, 한국교회 부흥에 새로운 불씨가 되리라 믿는다"고 했다. 한국 내의 성지순례는 (주)돌봄여행사(1544-9010)를 통해 참가할 수 있다. 국내성지순례에 대한 정보는 <http://기독교성지순례.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은애 기자

### “한기총 떠났던 교단들 돌아오도록 최선 다할 것”



이영훈 목사(우)가 간담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 좌측은 사임한 홍재철 대표회장.

최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선거에 단독입후보한 이영훈 목사(기하성 여의도순복음 총회장)가 한기총 임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각오를 밝혔다. 23일 오전 팔래스호텔 체리룸에서 진행된 이 간담회에는 그간 한기총과 소원하거나 대립각을 세웠던 이광선(예장통합)·최성규(기하성 여의도순복음) 목사 등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영훈 목사는 "한국사회가 절망에 처했을 때 꿈과 희망을 줬던 한국교회가 오늘날 영적 지도력을 상실하고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며 "제가 홍재철 목사님에 이어 대표회장으로 당선되면 한국교회의 회복과 재도약을 목표로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기총이 다시 일어나 장대교회에서 일어났던 대부흥의 역사가 광복 70년을 맞아 다시 일어나길 바란다"며 "한기총이 다시는 분열 없이 하나되고 떠났던 모든 교

단들이 돌아오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인사말을 전한 홍재철 대표회장은 "제가 퇴진 선언을 한 데 대해 대표회장 직무정지 처분 재판에서 이기려 한다거나, 한교연과의 통합에 주도권을 쥐려 한다거나, 이단 문제 등에 대한 보호막으로 이영훈 목사를 세우려 한 것이라는 등 유언비어가 많더라"며 "누구도 자신에게 물러나라고 하지 않았으나 한국교회를 위해 순수한 의도에서 결단했다고 강조했다. 홍 대표회장은 또 한교연에 대해서는 "합칠 것이 아니라 나갔던 자들이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 한기총 임원회의 결의"라고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영훈 목사님은 조용기 목사님의 후임으로서 목회를 잘 해 온 분으로, 그분이 대표회장이 된다면 여러분이 그분을 중심으로 화합하고 소신껏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류재광 기자



**DK HEALTH INSURANCE, INC.**

**건강보험 전문회사 DK 건강보험(구 하나건강보험)이**

**65세 이상의 메디케어 건강보험과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을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모든 건강보험 플랜을 취급합니다)



**213-500-4563**  
**ID:DKHEALTH**

**P오바마 건강보험 (Covered CA)**

1. 손님의 요구에 따라 각 카운티와 계약된 모든 건강보험을 보험료와 보험혜택을 꼼꼼히 비교 분석하여 드립니다.
2. 정부의 건강 보험 플랜이기 때문에 메디칼 그리고 커버드 캘리포니아 플랜과의 소득에 따른 연관성이 있습니다. 플랜 가입후 메디칼에 대한 고객 서비스 그리고 각 헬스 플랜에 따른 고객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처방약이 보장이 되는지 그리고 의료 외 혜택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통해 항상 여러분께에 있었습니다. 카카오키프 DKHEALTH 나 213-500-4563 을 기억하십시오.)

**메디케어만 가지고 있는 분들의 건강보험**

1. 메디케어만 가지고 있는 분들의 건강보험을 분석하고 메디케어 수혜자에게 가장 맞는 건강 보험을 비교 분석하여 드립니다. (처방약 비용 분석, 처방약 보장 분석, 차과 혜택 분석, 인경테 렌즈, 보청기, 헬스클럽등의 배니핏이 최대한 보장되는 플랜을 비교 분석하여 드립니다.)
2. 당뇨질환이나 심장질환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메디케어 건강보험
3. 신장투석을 하고 있습니까? 신장투석을 하거나 신장이식을 하신 분들을 위한 건강 보험 등을 분석 검토하여 드리겠습니다.

메디칼과 메디케어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분들의 건강보험 메디칼과 메디케어의 통합에 따른 여러가지 건강 보험중에서 고객에게 가장 맞는 건강 보험을 고객의 요구에 따라 맞춤 서비스를 하여 드리겠습니다.

DK 건강보험은 메디케어의 신청 메디칼의 신청 엑스트라 헬프 플랜의 신청 그리고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의 신청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카카오키프 서비스를(카카오키프 계정 DKHEALTH 혹은 213-500-4563 을 **저장 하세요**) 제공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카카오키프 톡을 통해 건강보험의 궁금한점을 질문하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에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신분이나 세금을 내신 기록에 따른 보험료가 달라 질수 있지만 최대한 저렴하며 보험가입자의 혜택을 위해 노력 하였습니다.

**0세부터 65세까지의 모든 건강 보험을 도와드립니다.**  
**65세 이상의 건강보험도 도와드립니다.**

문의 전화 **1-855-386-3088, 1-213-500-4563**

LA 본사 주소: 520 S VIRGIL AVE #204 \*샌 디에고, 오렌지 카운티, 다이아몬드 바에도 오피스가 있습니다.

**DK HEALTH INSURANCE, INC.**  
(구, 하나건강보험)



DKHIS.Inc  
LIC #: 0146629

# “낙태반대 vs 지지” 출산율 격차 연구

## 낙태반대자 더 늘어날 것

### 출산율에 따른 장기적 변화, 급속한 문화적 변화에 의해 상쇄



미국 버지니아에서 가장 큰 낙태시술병원 중 하나인 노버여성건강원이 문을 닫았다. 사진은 낙태를 반대하던 시위자들.

낙태반대자들(pro-lifers)이 낙태지지자들(pro-choicers)보다 더 많은 자녀를 낳기 때문에 미국은 낙태반대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연구가 발표됐다.

미국의 일반사회여론조사(General Social Survey-GSS)의 1977년부터 2010년까지의 자료를 통해 노스웨스턴 대학의 사회학자인 알렉스 케번과 제레미 프리즈는 낙태지지자에 비해했을 때 낙태반대자들의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더 많은 미국인이 낙태반대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내 낙태에 관한 공공의견의 흐름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의 출산 격차(Differential Fertility as a Determinant of Trends in Public Opinion about Abortion in the United States)”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7월 7일 사회과학연구네트워크(Social Science Research Network, SSRN)를 통해 발표됐다.

34년 이상 진행된 연구에서 낙태반대자들은 평균 2.5명의 자녀를 둔 반면 낙태지지자들은 2명의 자녀를 두었다. 다시 말해, 낙태반대자의 출산율은 낙태지지자의 출산율보다 27퍼센트 높았다.

더 많은 자녀를 낳을 뿐 아니라, 낙태반대자 부모를 둔 자녀는 낙태지지자들의 자녀보다 부모의 견해를 받아들이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케번과 프리즈는 이를 보여주는 선행연구들을 지적하며 그들의 연구

에서 이에 대한 몇 가지 증거를 발견했다. 그러나 그들은 신념의 전파에 있어서 차이는 낙태지지자와 반대자 간의 차이 때문이라기보다는 문화적 차이 때문일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연구자들은 더 많은 형제를 둔 이들이 부모의 견해와는 별개로 낙태반대 견해를 지지하기 쉬울 수 있다고 인정했으나 이 가설을 입증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

연구자들은 낙태반대자와 지지자 사이에 출산율의 차이가 없다면 미국인의 낙태반대율은 5% 떨어질 것이라 추정했다.

이 연구 따르면, 낙태반대자와 지지자 사이의 출산율은 1970년대 후반 이후 점점 크게 벌어졌으며 낙태 태도에 있어 이러한 차이에 따른 영향이 지속되면 그 결과는 향후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이 연구에서 출산율은 케번과 프리즈가 지적한, 공공의 의견에 변화를 일으키는 유일한 요인이다.

그러나 다른 경우도 있다. 동성애자 관리에 대한 태도는 낙태에 관한 태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유사한 출산율 격차를 보인다. 그러나 동성결혼 지지율은 최근 극적인 변화를 겪어왔다. 출산율 격차는 오랜 시간에 걸쳐 작은 차이를 만든 반면,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는 단시간 내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 전통결혼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출산율의 이점은 동성결혼에 관한 견해의 급속한, 커다란 변화에 압도당한 것이다.

한 주디 기자

# 흑인 소년 총격 후 “주민 모두가 상처 입은 환자”



이번 사태로 인해 시위가 장기화되며 경찰력이 배치되는 등 갈등이 적지 않다. © Loavesofbread via Creative Commons

흑인 소년이 경찰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으로 충격에 휩싸인 미국 미주리 주의 작은 도시 퍼거슨이 이제 ‘인종 갈등’의 장(場)이 되고 있다. 특히 이 지역 흑인 사회는 사망한 마이클 브라운(18)이 총격을 받을 당시 비무장에 저항하지 않았던 상태였다는 것이 조사 결과 드러나면서 당국의 야간통행금지 발령에도 경찰에 반발하는 시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러한 시위에 반대하는 백인들의 맞대응 시위까지 벌어지면서 미국 사회의 뿌리 깊은 인종 갈등은 또다시 많은 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안기고 있다.

퍼거슨에서 오랜 기간 목회를 해 온 윌리스 존슨 목사는 이러한 시위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좌절과 상처 받은 감정, 그리고 불안감과 공포가 표면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며, “퍼거슨 주민들 모두가 (이번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환자들이다”고 말했다. 존슨 목사는 이에 자신의 교회를 포함한 지역 교회들이 “주 당국자들과 사회 구성원들 간의 대화를 이끌어내고 시위로 인한 소요 사태를 멈추고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존슨 목사는 퍼거슨 지역 교회들이 시위에 참여하기보다는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전달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미국 전역에서 많은 목회

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금식하며 모임을 갖고자 퍼거슨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존슨 목사는 “지금은 우리가 이 사회의 문제를 직시하고 받아들이면서 개인의 책임을 져야 하는 때”라며 “각자가 책임감 있게 행동할 때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퍼거슨의 또다른 목회자인 킴벌린 톰슨 목사 역시 도시에서 지속되고 있는 소요 사태에 반대한다며 “교회 내에서 인종 간 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모두 참여해서 서로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톰슨 목사는 특히 이웃의 흑인 교회와도 대화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흑인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콘리 깁스 목사는 “기도와 대화에 참여하는 교회들은 모두 성경에서 그 답을 찾고 있다”며, “성경은 혼돈의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무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준다”고 말했다. 톰슨 목사와 깁스 목사의 교회처럼 퍼거슨의 많은 교회들이 지역의 평화를 되찾기 위해 인종 간 대화와 연합된 기도 모임 등을 주도하고 있다.

톰슨 목사는 “갈등에 대한 언론의 집중 보도는 지금의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순현정 기자



**LA 지역**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한천영**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갈릴리션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박현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찬양예배 오후 3: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3251 W.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213) 413-1600 / laopendoor.org

주일 오후 4시    **엘리아 김** 담임목사  
새벽 오전 5:30 (월-토)    영어예배 1부 오전 9:00  
저녁 오후 7:30 (화,목,금)    2부 오전 10:00  
    금요일에 저녁 8:00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978 S. Hoover St.#203 LA 90006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1부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00    2부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일에 저녁 8:00

**나성한인교회**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221-9531 / F. (323) 221-0345

1부예배 오전 7:45    EM예배 오전 11:30    **진유철**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에 오후 7:30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하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정우성**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 오전 6:30 (월-금)  
    오전 10:30 (수)    오전 6:30 (토)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신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213)598-0191

1부예배 오전 8:00    대학부 오후 1:00    **김광삼**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저녁 7:30(목)  
유초중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0:45    6:00(토)

**나성제일교회**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9:00    주일학교 오후 1:00    **김요섭** 담임목사  
2부예배 오후 11:45    새벽예배 오전 6:00 (화-토)  
성경공부 주일오후 2:00

**남가주리디머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737-3538 / www.laredeemer.com

주일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주일오전 11:00    **이영** 담임목사  
찬양예배 오후 1:45    심양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라성빌라델비아교회**  
하나님 중심 생활/ 말씀 중심 생활/ 교회 중심 생활  
3240 Wilshire Blvd. #265 Los Angeles, CA 90010  
T. (714) 319-2234

주일예배 오전 9:00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00    **김경렬** 담임목사  
EM예배 주일 오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1:00    목요찬양예배(목요일 오후 7시 30분)  
교회학교 주일 오전 9:00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399-7949 / www.smkc.us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금요일에 오후 7:30    **한기형**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나성동산교회**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교회  
2525 W 9th St, Los Angeles, CA 90006  
T.(213) 487-3920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일예배 오후 9:00    **정장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30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김원일, 이음, 꿈, 열매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213)387-1700 C.(213)500-4737 / olympic-church.org

**박승부** 장로    1-67 수료생 배출, 현재 7기 수료생 양성 중  
- 수기치료의료선교사 양성  
- 약품이나 기구없이 손만으로 각종질환치료하는 의술

**세계의료선교사육성재단**  
2836 W. 8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 381-7273 / (213) 605-2928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학교 오전 11:00    **조인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EM예배 오전 10:00

**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이경애** 목사, **이은우** 목사  
무료 사회복지 상담 및 대형 (점부 베네딕트 전방)  
음식 보조 프로그램(Food Stamp),메디칼, 입산부 메디칼

**요한 선교교회**  
gkal44 Yahoo.com Tel: (213) 703-6863  
522 N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오전 10:00    **김세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에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엘에이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에 오후 7:30    **현연섭** 담임목사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구역모임 오후 7:30  
오후 찬양예배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구인성장로교회**  
실천하는/전도하는/환신하는 신앙 공동체  
4545 W.Washington Blvd. LA, CA 90016  
T.(323)428-7878 F.(323)932-0788 / kuhnhy@hanmail.net

**김중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예향선교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213)281-1196 E. isaacdew@hotmail.com

**류종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임마누엘선교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323)766-9922 / www.jaimch.com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신승훈**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금요일에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대표 김갑선** 목사    부설 : Naturo pathy Clinic(월-금)  
진료문의 213) 505-7067

**지구촌 농업선교회**  
3000 W. 6th St. #309 LA CA 90020  
T. (213) 505-7067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이명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초.진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민종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에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교회**  
몰리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 549-9199 / choonghyun.org

**박부환**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양기도회 오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0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수요일에 오후 7:30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김기섭**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젊은이 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위하고, 이민2세를 섬기며, 이민2세대에게서 선교영광을 승화하는 교회  
51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36  
T.(323)930-0011,(323)935-0011 / www.LASarang.com

# 교회미션교회

## LA 동부 지역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경집회 오후 8:0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갓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2부예배 오전 9:30(EM)    오전 6:00 (토)  
3부 오전 11:30

**박혜성** 담임목사

**남가주헬로쉽교회**  
순전한 말씀으로 열매맺는 진리의 공동체

375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 397-5737 / nfucus.com

주일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김성일** 담임목사  
주일학교 오전 11시    토요일연합새벽기도회 오전 6:00  
성경공부 오후 1:30

**빅토빌예수마음교회**  
제자훈련사역과 성령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성도공동체

T. (760) 220-3263, (760) 542-9366

1부예배 오전 8:0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12:50    **고태형**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전 11:00    (토)    오전 6:00  
4부예배 오후 12:5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선한목자장로교회**  
선교하고 가르치는교회

1816 S.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965-3443 / F. (626)965-0404 / sunhanchurch.com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고송희**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전 11:45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박신철**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일참회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이훈준**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오후 10:00-11: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173 E.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 (909) 388-2940

1부예배 오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양성필**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0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 사우스베이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 성경공부 오후 1:30    **안병권** 담임목사  
목요일예배 오후 7:30분    영어예배(EM) 오전 11:30    오전 11:30  
새벽예배 오전 6:00(수,토)    유년주일학교 오전 11:30

**가나교회**

1201 W. 255th St. Harbor City, CA 90710  
T. (310)986-9797 / ganachurch.homepage.com

**정상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3부예배 오후 2:00    중, 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중, 고등부예배 오후 9-11시

**나성금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김영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후 12:00    **나눔 장로교회**  
성경공부 주일오후: 2: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45  
주요찬양예배 오후 7:45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서보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 초, 중, 고등부 오전 11:00    오전 11:3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 고등부 오전 10:00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30/2부 11:00    **대흥장로교회**  
2부예배 오전 9:30    중, 고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후 7: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땅끝까지 내 증인이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박성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20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가디나선교교회**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기도회 오후 11:00    주일학교 오후 7:00  
다민족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1044 West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213)365-9188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강산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세계성경장로교회**  
신통(通)하고 인통(通)하며 물통(通)하여 만사형통합니다!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이중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코너스톤교회**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주일학교 오후 7:00  
3부예배 오후 2:00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9400 / cornerstonenet.com

**김바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장래예배 오전 10:00    **토렌스 조은교회**  
2부예배 오전 10:00    Toddler-Youth 오전 11:30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am    오전 6:00  
4부예배 오후 1:15(EM) 청년    수요일예배 오후 8:00    오전 8:00  
5부예배 오후 3:00(KM) 청년    금요일예배 오후 8:00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 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00    **류준영** 담임목사  
주일 성경공부/새교우반    새벽예배 오전 7:00 (토)    오후 1:00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전 9:30/오전 11:00    **이성현**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오전 11:3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오전 6:0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토 오전 6:00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부예배 오후 7:00    **최희** 담임목사  
2부예배 오후 12: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세리토스채플)  
아동부예배 오전 11:5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벨리채플)  
학생회예배 오후 12:00    특요강성집회 오후 7:45 (다우니 채플)  
금요성경집회 오후 7:45 (벨리채플)

**벤추라 감리 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교회

4300 Telegraph Rd., Ventura, CA 93003  
T. (805) 658-2171 / venturakorea.com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세리토스채플)    **최희** 담임목사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세리토스채플)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벨리채플)  
특요강성집회 오후 7:45 (다우니 채플)  
금요성경집회 오후 7:45 (벨리채플)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5711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818) 363-5887 / in-christcc.org

EM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파사데나장로교회**  
스페인예배 오전 10:00    오후 6:30 (토)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신 신앙공동체  
한국어 오전 10시 (힐루우슬롭)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오후 12:00 (분당)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곽덕근** 담임목사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 뉴욕갯세마네교회 다니엘특별새벽기도 '뜨거운 기도현장'



뉴욕갯세마네교회가 다니엘처럼 21일간 개인의 기도제목과 뉴욕의 부흥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삶을 살게 해주소서.”

“권사님 가족들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뉴욕갯세마네교회(담임 이지용 목사)는 20일부터 다니엘특별새벽기도를 21일간 진행하고 있다.

다니엘이 세 이레를 작정하여 기도한 것처럼 3주간 개인의 신앙 발전과 가정의 어려움 극복, 뉴욕 교회들의 변화를 위해 작정 새벽기도를 시작했다.

다니엘특별새벽기도에는 뉴욕갯세마네교회 성도들의 절반 가량이 매일 참여해 간절히 기도한다. 이지용 목사는 설교를 마친 이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수기도하며 성도 개인과 그의 가정을 위해 간구하고 있다.

이지용 목사는 다니엘특별새벽기도 첫날 ‘뜻을 정하여’(다니엘1:1-17)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지용 목사는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시절 왕궁에 거할 때, 그때를 자신의 신분 상승의 기회로 삼지 않고 뜻을 정해 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신앙의 절개를 지켰다”면서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바랐던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해서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지용 목사는 “뉴욕의 이민 생활도 마찬가지로 세상적으로 볼 때 화려한 도시 속에서 세상의 출세를 좇으며 살 수도 있지만 우리는 신앙을 지키고 첫 사랑을 회복하는 자들이 돼야 한다”면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준을 세워 나갈 때 이민생활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설교 이후에는 성도들이 다 함께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라는 뜻을 담아 ‘주여 3창’을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한다. 성도들은 통성기도가 시작되면 모두 강단 앞쪽으로 나와 다 함께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한다.

뉴욕갯세마네교회는 매주 담임 이지용 목사와 성도들이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며 새 신자를 교회로 인도하는, 전도가 살아있는 교회다. 지금까지의 수평이동을 지양하고 태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며 교회가 성장해 왔다.

뉴욕갯세마네교회는 다니엘특별새벽기도를 진행하면서 오는 9월 1일부터 4일까지 장영출 목사를 강사로 초청, 집회를 갖는다. 또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은혜 받고 주의 증인되자’는 주제로 가을부흥회를 연다.

김대원 기자

## 정상급 성악가들이 만드는 '가곡과 아리아의 밤' 관심 뜨거워

20일 기자회견 갖고 무대에 대한 큰 기대감 나타나



'제1회 가곡과 아리아의 밤'을 만들어 갈 출연진과 관계자들. 왼쪽부터 테너 채혁, 소프라노 전주원, 피아노 박유영, 이봉협 맨즈앙상블 단장, 바리톤 안태환.

에틀랜드맨즈앙상블(단장 이봉협)에서 주최하고 교회음악협회, 조지아크리스찬대학, 기독일보에서 후원하는 '제1회 가곡과 아리아의 밤'에 대한 안팎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9월 7일(주일) 오후 6시, 실로암교회(담임 신윤일 목사)에서 열리는 에틀랜드 한인사회 최초 '가곡과 아리아의 밤'에는 에틀랜드와 뉴욕의 정상급 성악인들이 출연해 가을 밤을 풍성하게 수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프라노 홍승희, 소프라노 전주원, 메조 소프라노 박영경, 테너 채혁, 바리톤 안태환 등 수준 높은 실력과 함께 풍부한 경험을 갖춘 이들이 각자의 개성과 독특한 음색을 마음껏 뽐내게 될 개인 무대는 물론 바리톤과 테너의 협주, 소프라노와 메조 소프라노 협주 역시 기대를 모으는 부분이다.

20일(수)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연주회에 대해 소개하는 자리에서 바리톤 안태환 씨는 “모두 각자 활발하게 활동해 오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가곡과 아리아' 연주를 위해 모이게 됐다. 파드별로 다양하게 출연해 오페라, 가곡, 종교곡 등 풍성한 무대를 만들고자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테너 채혁 씨 역시 “다른 출연진들을 보고 동참하기로 결정한 만큼 음악회의 수준은 보장된다고 생각한다. 각 연주자들이 이렇게 모이는 것이 처음인 만큼 신선한 무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맨즈앙상블 이봉협 단장은 “오랫동안 구상해 오다 마침 에틀랜드와 뉴욕에 좋은 성악가들이 모이게 되어 올해 처음 에틀랜드에서 '가곡과 아리아의 밤'을 개최하게 됐다. 한국에서는 매년 가을이면 어김 없이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대표적인 문화행사로 자리잡았지만 에틀랜드에서는 최초로 열리는 만큼 한인 동포들의 삶 속에 문화적인 '활력소'를 드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500석 규모가 확 짙 것으로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언급했다.

'제1회 가곡과 아리아의 밤'에서 연주될 곡목은 오페라 아리아: Nun eilt herbei from Die Lustigen Weiber von Windsor by Otto Nicolai, Habanera 오페라 카르멘 G. Bizet, E lucevan le stella from Tosca by G.Puccini, Non piu andrai from Le Nozze di Figaro by W. A. Mozart 등 정통 가곡과 오페라 곡부터 신이리랑, 고희의 노래, 강 건너 봄이 오듯, 남촌, 옛날을 가고 않아도 등 오랜 추억에 젖게 하는 한국 가곡과 민요 그리고 성가곡 등 다양하다.

연주회 장소인 실로암교회는 500석 규모로 더욱 아름다운 연주회를 만들기 위해 터득 소지자에 한해 입장을 제한할 계획이다.

티켓은 20불(시니어와 청소년은 15불)에 아틀란타말씀사에서 구입할 수 있다.

문의 : 678-350-4680  
lovejoy0707@gmail.com

박현희 기자

미동부기아대책기구 콜롬비아 아동에게 희망 심다



콜롬비아 아동센터 어린이들과 함께 기념촬영

미동부기아대책기구(회장 박진하 목사)가 5일부터 9일까지 콜롬비아 아동센터를 방문, 현지의 아동들과 가정들을 돌보고 위로하는 사역을 펼쳤다.

콜롬비아 아동센터는 미동부기아대책기구가 아동결연 사업을 펼치는 중 현지의 아동들에게 물질 후원뿐만 아니라 교육과 선교의 기회도 제공하고자 건립한 기관으로 지역 노인들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방과 후 학교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복음도 함께 심고 있다.

이번 콜롬비아 방문에는 회장 박진하 목사, 부회장 전희수 목사, 사무총장 유상열 목사, 회계 권 캐더린 목사, 이사장 황영진 목사, 기획위원장 임병남 목사, 국제선교국장 이종명 목사, 상임 자문 김인한 장로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방문팀은 첫날 초등학생 약 80명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며 둘째 날은 오전 중학생 80명의 생일 파티, 오후에는 고등부 250명의 생일 파티를 진행했다. 모든 물질은 뉴욕의 후원교회와 목회자들,

성도들이 한 아이 당 30불의 기금을 마련해 총당했다.

또 이번 선교 방문에서는 현지 어린이들에게 많은 선물도 전달했다. 선물은 타월, 갓가지 먹거리, 기아 로고가 들어간 컵, 가정 방문시에는 삶에 필요한 양식과 필요한 생필품 등이었다.

또 미동부기아대책이 돕고 있는 아이들 집을 찾아 방문해 사람으로 기도해 주며 꿈을 심어 주는 사역을 은혜 가운데 마치고 돌아 왔다. 앞으로도 미동부기아대책기구에서는 콜롬비아뿐만 아니라 페루, 동남아, 북한 아이들에게까지 빵과 복음을 나누려는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며 섬길 계획이다.

박진하 회장은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은 제한 없이 환영한다"면서 "미동부기아대책기구는 정확하고 투명한 재정 운영을 기반으로 해외의 한 아동을 양자로 삼아 사랑을 양육하고 기르는 전인적 사역을 펼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대원 기자

애틀랜타 교회협의회, 복음화대회 막바지 준비 한창

애틀랜타한인교회협의회(회장 임연수 목사)가 '2014 애틀랜타 복음화대회'를 위한 기도모임을 갖고 막바지 준비에 힘쓰고 있다.

올해 복음화대회는 달라스뉴송교회 박인화 목사를 강사로 9월 24일(수)부터 28일(주일)까지 서부와 동부지역에서 각각 열린다. 집회 주제는 '권능을 행사하라'(마10:1)이다. 집회는 24일과 25일 오후 8시에는 임마누엘한인연합감리교회(담임 신용철 목사)에서, 26일과 27일 오후 8시, 28일 오후 7시에는 실로암한인교회(담임 신윤일 목사)에서 열린다. 또 27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죽은 교회를 해부해 보면'을 주제로 목회자 세미나가 진행된다.

박인화 목사는 집례교를 대표하는 설교자 중 한 명으로, 한 순간도 긴장을 풀 수

없는 다이나미한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인화 목사는 15세로 Patten University, Southea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Dallas Baptist University에서 공부했으며 미주 남침례회 한인교회 총회 교육부 이사와 그린오션 전략 자문 위원으로 활동중이다.

19일(화), 새언약장로교회(담임 최선준 목사)에서 열린 이날 기도 모임에서 임연수 회장은 "복음화대회는 전도를 중심으로 하는 집회이다. 때문에 말씀 속에 복음을 강조하는 분을 찾던 중 박인화 목사를 초청하게 됐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지명도 있는 분들이 강사로 많이 초청됐으나 이민사회의 사정을 잘 아는 미주지역 목회자를 초청하는 의견이 반영됐다"고 강사 선정 이유에 대해 밝혔다.

김 앤더슨 기자

실용음악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길 열렸다

애틀랜타 지역에서는 최초로 정규대학교에 실용음악과정이 개설돼 주목 받고 있다.

2014-2015 신학기부터 시작되는 조지아 크리스찬대학교(총장 김창환 목사) 실용음악과정(주요교수 노준엽 목사)에서는 예배찬양사역학, 보컬, 시정/청음, 베이스 기타, 라이브 퍼포먼스, 드럼, 재즈 히스토리 등의 과목을 제공하게 돼 전문적인 예배음악사역자를 양성하는 산실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히 이번에 구성된 조지아 크리스찬대학교의 실용음악과정 교수진들은 이론과 실력, 교회 안팎의 풍부한 경험을 고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각자의 영역에서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교수들이다. 이외에 학생의 입장에서 더 배우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외부 강사를 초빙할 방침이다. 졸업할 때는 자신의 졸업작품을 갖고 어디에서든 실력을 인정받으며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사역자를 양성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교회 예배의 현장으로 돌아와 '실용음악'을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악기인 사람의 '목소리'를 포함해 교회에 있는 모든 '실용적인 악기'를 충분히 이해하고 기술적인 부분을 함양해 예배의 음악이 조화를 이루고 아름다운 선율로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된다.

조지아 크리스찬대학교 실용음악과정은 이미 개강했지만 9월 6일까지 추가적으로 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노준엽 주임교수는 "시작하는 단계지만 훌륭한 교수진들과 함께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예배하기에 합당한 도구인 음악을 통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록 '예배의 회복'과 '시대적 사명의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레이스 박 교수는 "인간된 학교에서 열정을 갖고 기초부터 천천히 제대로 배워 보고 싶은 분들을 환영한다. 찬양인도자분들은 꼭 배워 보시길 권한다. 영주권자 이상인 경우 주정부의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유학생의 경우 I-20를 받을 수 있다. 이제 막 시작하는 만큼 교수님들과 일대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집중적인 맞춤 강의를 들을 수 있으며, 스케줄 역시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일근 교수는 "이미 가진 지식과 경험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 시골교회에서 드럼 튜닝을 맞추듯 아주 작은 것부터 같이 해나간다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실용음악과정을 함께 만들어 가고 싶다"고 각오를 전했다.

장제화 교수 역시 "미주 지역에서 '실용음악' 자체가 새로운 시도이고 시기상조일 수 있지만, 교회 음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음악에 흥미를 가진 분들이라면 기초부터 배울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디렉터 노준엽 목사는 그리스도신학대학교 신학과와 서울장신대학교 예배찬양사역대학원을 졸업했으며, 그리스도의 교회 교단 새파교회, 목동교회, 인천주안교회, 강서교회, 화곡교회 등에서 교육 전도사, 성가대 지휘자, 찬양인도자, 부목사, 예배 목사를 역임했다. 생명나무선교단 찬단 및 활동을 하기도 했다.

문의 : 770-279-0507

770-866-0190

박현희 기자

O.C./앨버틴 지역

오병익 담임목사, 건강한 교회,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교회, 7037 orangethorpe Ave., Buena Park CA 90621

김영길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받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민경덕 담임목사,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헤어지는 교회, 1200W Lambert Rd, Brea CA 92821

남가주동신교회,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교회, 2505 Yorba Linda Bl., Fullerton, CA 92831

박용덕 담임목사, 남가주빛내리교회, God First 기록한 MVP 공동체,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허규암 담임목사, 놀익연합감리교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로 세우는 교회,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1655 West Broadway St., Anaheim, CA 92802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남상국 담임목사, 오픈바이블교회, OPEN BIBLE CHURCH, 800 S.Harbor Blvd. #220, Anaheim, CA 92805

신원규 담임목사, 삼성장로교회, 주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성도의 삶 선교와 구제의 삶으로 실천, 501 S. Idaho St., La Habra, CA 90631

세리토스장로교회, 11841 E. 178th St., Artesia, CA 90701

김민재 담임목사, 예친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955 W Imperial Hwy Brea, CA 92821

얼바인 침례교회,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최상준 담임목사, 얼바인 한민음교회, 믿음으로 하나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김삼도 목사, 얼바인 할렐루야교회, 15520 Rockfield Blvd, #F Irvine, CA 92618

지사론 담임목사, 열방사랑선교센터, 9850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영민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최국현 담임목사, 은혜와진리교회, 부설: 이스라엘 말리아 선교회-성지순례, 정밀전문, 4000 Green Ave, Los Alamitos, CA 9072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반교회 세계선교를 미루지 않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앤드류 김 담임목사, 작은자 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 교회, 1681 W Broadway Anaheim, CA 92802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 빛 교회, 7651 5th St, Buena Park, CA 90621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엘에이 정식허가 고급하숙, 입주자회 \$ 책임보험, 5성급호텔의 시설, 아침,저녁제공 캐리어 tv 초고속인터넷,냉장고,세탁장,교통편리, 1호점: 8가 + Catalina, 정식허가, 2호점: 5성급호텔의 시설 (올림픽+원저), 3호점: 최고급 5성급호텔 시설 (3가+옥스퍼드), T. 213.327.4710

www.SuperMirapharm.com

# 투병생활이 필요없는 치유의 시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천연 치료제 개발!!

# 미라팜-22 MIRAPHARM-22

22세기형 생명공학적인 첨단 의약품으로 탄생했습니다.

2014년 한국은 면역조절제 개발이 국가적 신약개발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른바 생물학적 면역조절제 개발 프로젝트이다. 인간의 질병의 근본 원인 치료제를 개발하는 게 목표이다. 기존 면역조절제(화학성)의 부작용을 최소화해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생명공학적인 접근이 필요한 때라서 국가적인 개발 과제로 삼은 것이다. 그런데 본사는 이런 첨단 의약품제조기술을 25년 전부터 연구하기 시작하여 생체응답 조절작용제로서의 면역조절제인 미라팜-22를 미국 FDA에 일반의약품으로 등록하고 출시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FDA에 NDC (OTC Drug) 일반의약품으로 인증 등록 됨  
일반의약품 등록번호 NDC No.: 58912-2001-1



FDA 직접 확인해보기  
NDC Number를 선택하시고  
58912-2001-1 로 검색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등  
질병에 대한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을 주는

# MIRA PHARM -22

Mirapharm-22는  
Miracle Pharmacy(기적의 약)의 합성어이며  
22는 22세기형 첨단신약을 뜻합니다.



90cap. 300mg/cap. Made in USA

100% 천연 물질로 만들었으며 25년간의 연구와 비임상을 거쳐 효과는 확실히 검증이 되었고 부작용의 염려가 없습니다.

- ◆ 14년간의 연구와 11년간의 임상 끝에 미국 FDA에 Human OTC Drug 일반의약품으로 등록됨
- ◆ FDA 등록 연구소에서 성분 분석 테스트 결과, 영양 함유물 및 식품으로 안전하다고 인증됨
- ◆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등 면역결핍에 의한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을 주는 약으로 등록 명기되어 있음.
- ◆ 친환경 100% 천연 유기물질을 핵심 재료로 생명공학적인 공법으로 특수 가공한 차세대 신개념의 첨단 천연의약품인 면역증강 및 면역조절제
- ◆ 면역증강제로도 치유되기 어려운 자기면역질환들을 면역조절제로써 자가치유할 수 있는 첨단 의약품
- ◆ 어떤 면역증강 건강보조식품보다 탁월한 효능을 입증받아 일반의약품 NDC OTC Drug로 등록되었으며, 수많은 난치병들 중 대부분은 자기면역질환으로써 현존하는 약으로는 치료가 어렵지만 면역조절제인 미라팜-22는 이런 난치병들을 자기와 비자기를 인지할 수 있도록 면역세포에 작용, 항원특이적 또는 비특이적으로 면역반응을 증강시켜 면역계에 작용하여 면역반응을 촉진시킴으로써 면역을 스스로 조절해 주면서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을 줌



복용 후 5일 11/5/2013      복용 후 25일 11/25/2013      복용 후 77일 1/16/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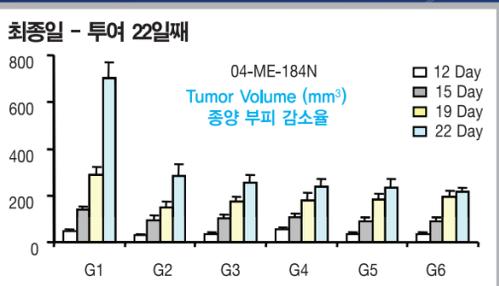
갑상선  
말기암  
환자의  
최근 체형사례



복용전      복용후 99일

생후 5개월부터  
28년된  
아토피 환자의  
치료 사례

암 예방 및 치료제인 미라팜-22가 화학 항암제보다 월등히 뛰어나다고 검증된 비임상 테스트 확인 도표



군 (mg/kg)	Control 무치료	Doxorubisin (2) 화학항암제	Mirapharm-22 (75) 미라팜-22	Mirapharm-22 (150) 미라팜-22	Mirapharm-22 (300) 미라팜-22	Mirapharm-22 (300) 사전 예방처리
22일째 (최종일)	704.6 ±67.2	285.6 ±50.6	251.9 ±36.3	235.3 ±34.6	232.1 ±38.5	214.2 ±20.5
22일째의 억제율 %	0	59.5	64.3	66.6	67.1	69.6
	G1	G2	G3	G4	G5	G6

● 화학요법 항암제보다 월등히 뛰어난 암 부위 감소율의 결과로 천연 치료제 미라팜-22의 비임상 결과에 대한 논문은 추후 학술지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 옆의 도표들은 각각 두 차례 정부 인가 연구소에서 비임상 테스트를 통해 나온 결과이며 미라팜-22를 더 많이 복용했을 때에 더 좋은 결과를 나타냅니다.

## 미라팜-22 총판 및 대리점 모집

난치병 및 각종 암치료제로 더욱 유명해진 천연 미라팜-22가 전 세계적으로 수출을 시작하면서 미국내 지역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이 제품을 판매 및 수출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1. 각 지역 총판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
2. 각 지역의 도시의 대리점을 운영하실 분
3. 현재 약국을 운영하시는 분
4. 건강보조식품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
5. 의약품 세일즈 전문업을 하시는 분
6. 건강보조 제품 세일즈를 하시는 분

HQ 헬스 / HQ 바이오텍, INC. L.A. 본 점 (213)365-2100  
833 S. Western Ave. #1, L.A., CA 90005 세리토스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10am-5pm



# 유럽인권법원 “동성결혼할 권리는 인권 문제 아냐”

## 전통적 결혼 정의 지지하는 판결 내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소재한 유럽인권법원 ©CherryX / Wikipedia

유럽인권법원(ECHR)이 “동성결혼할 권리는 인권이 아니다”는 판결을 내려 향후 유럽 국가들에서의 동성결혼 합법화 확산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최근 핀란드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한 남성이 아내와의 법적인 결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동성결혼 관계를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소송인은 핀란드에서 아내와 함께 10년 간 결혼 생활을 해 왔으며 자녀도 두었으나 2009년 성전환 수술

않는다”며 이들 부부의 결혼 관계 인정 여부는 핀란드 당국에 달려 있다고 판결 내렸다.

또한 소송인 부부가 핀란드에서 동성애자들에게 법적 부부와 유사한 권리를 보장해 주고 있는 시민연합(civil union)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결혼 관계를 인정 받아야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동성 간에는 결혼이라는 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전통결혼 지지자들의 관점과 동일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와 반대로 법원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이 결혼해 가족을 이룰 권리는 기본적인 인권”이라고 인정하면서, 국가는 전통적인 결혼제도를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결은 핀란드뿐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도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움직임에 제약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유럽연합 내 47개 국가 중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나라는 10개국이며, 핀란드는 북유럽 중에서 유일하게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지 않은 나라이다.

손현정 기자

# 힐송의 세계적 영향력 비결, “오직 예수님 이름만 높인 것”



힐송처치의 호주 메인 캠퍼스에서의 워십 집회 모습 ©Hillsong Church

전 세계 워십 문화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호주의 힐송처치(Hillsong Church)가 자신들의 성공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 온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의 한 작은 워십 밴드에서 출발한 힐송의 워십팀인 힐송 유니티드(Hillsong United)는 3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지금 전 세계에서 워십 밴드의 대명사가 되었으며, 올해는 기독교 음악의 그래미 어워드라고 불리는 도브 어워드의 10개 부문에 후보에 오르는 영광을 안았다.

힐송의 워십 감독 담당자인 어텀 하드맨(Autumn Hardman)은 최근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와 같은 성공의 비결에 대해 “예수님을 우리의 앞에 그리고 중심에 늘 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얼마 전 힐송이 뉴욕 타임스 스퀘어에서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나니(No Other Name)’ 광고 캠페인을 벌인 일을 언급하면서, 이 문구는 힐송 유니티드의 새 앨범 제목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그는 힐송의 워십 사역은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 속에 드러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강조했다.

11년간 힐송에서 워십팀의 감독을 담당해 온 하드맨은 현재 호주와 전 세계의 힐송 캠퍼스들을 통틀어 12개의 워십팀이 있고 각 팀의 스태프와 봉사자의 수는 50명에서 메인 캠퍼스의 경우 500명 이상에까지 이르러 총 2천여 명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을 포함한 이 많은 사람들이 힐송의

가족으로서 열정적으로 사역을 해 나갈 수 있게 하는 힘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단순하지만 열정적인 메시지”라고 밝혔다. 그는 “나는 힐송의 음악을 언제나 사랑해 왔고, 이곳에서 온 뒤로는 이들의 정신과 영혼에 매료됐다”고 말했다. 한편, 힐송의 수많은 곡들이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하드맨은 “우리의 목표는 매우 단순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의 곡들에는 모두 그러한 표현들이 담겨 있다”며, “세월이 지나면서 장르도 사운드도 많은 변화를 거쳤지만 우리의 메시지만은 늘 똑같았다”고 전했다.

하드맨은 힐송의 워십 사역을 이끌어가는 동기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창의력이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돕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삶의 모든 순간에 예수님과 이웃들을 섬김으로써 우리가 받은 재능을 지혜롭게 쓰는 선한 청지기가 되려고 한다”고 전했다.

힐송처치는 1983년 브라이언과 바비 휴스턴 목사에 의해 창립되었으며, 호주 하나님의성회인 호주기독교교회(ACC)에 소속된 오순절파 교회다.

손현정 기자

# 이슬람 종주국 사우디

## IS의 범죄 “강력 규탄”

“인류 문명 파괴하고 있다, 무슬림이 가장 큰 피해자”



압둘 아지즈 알 셰이크(Abdul Aziz al-Sheikh) ©Wikimedia Commons

사우디아라비아의 최고위 성직자가 이라크 수니파 반군 이슬람국가(IS)를 ‘이슬람 제1의 적(敵)’으로 선언했다.

20일 사우디 국영 통신인 사우디프레스에이전시(SPA)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의 이슬람 성직자인 압둘 아지즈 알 셰이크(Abdul Aziz al-Sheikh)는 최근 IS를 강력히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들이 인류 문명을 파괴하고 이슬람에 적대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 분명하게 지적했다.

알 셰이크는 성명에서 “인류 문명을 파괴하면서 이 세계를 부패시키고 있는 그들의 극단적이고 호전적인 사상과 테러리즘은 이슬람에 속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이슬람의 제1의 적들이 벌이는 행위다. 무슬림들은 이러한 행위의 가장 첫 번째 희생자들이다”고 주장했다.

엄격한 이슬람 율법으로 통치되고 있으며 어떤 종교적 관용도 인정하지 않는 사우디의 고위 성직자가 IS를 규탄하고 나온 것에 대해서 로이터통신은 “사우디의 이슬람 강경주의와 IS의 사상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밝히면서 “이슬람 강경주의 성직자들 역시 배교, 간통, 신성모독 등을 참수로 다스리지만 이들은 폭력적인 반정부 행위를 반대한다는 데서 IS나 알카에다 등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알 셰이크를 비롯해 최근 이슬람권 고위 성직자들은 잇따라 IS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표명하면서, 전 세계 무슬림들에게 이들을 지지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앞서 이집트의 고위 이슬람 성직자인 사우키 알람 역시 이집트 국영 MENA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IS가 “이슬람과 무슬림들을 위협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알람은 “IS처럼 극단주의적이고 폭력적인 집단은 이슬람과 무슬림들에게 위협적인 존재다. 이런 집단은 우리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가는 곳마다 희생자를 낳고 부정부패를 퍼뜨린다”고 말했다.

또한 “IS는 이슬람을 무너뜨리기 원하는 이들이 테러리즘과 싸운다”는 명목 아래 우리의 문명에 간섭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도 IS를 지지하거나 이들의 조직에 가담하는 데 대한 정부 금지령이 내려졌다.

조코 수안토 인도네시아 정치범안보조정장관은 “IS는 우리나라의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다양성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IS에 찬동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들의 정신과 가르침은 인도네시아의 국가적 정체성에 위배된다는 것을 확실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IS는 2013년 창립된,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가장 위협적인 지하디스트 단체 중 하나로 급격히 세력을 확대해 왔으며, 매우 극단적인 반서구·반기독교 성향을 보이고 있다. IS는 모슬을 점거하기 전에도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비무슬림들과 서구인들을 대상으로 한 테러로 악명을 떨쳐 왔다.

손현정 기자

**추나**  
수술 없이  
척추 치료

# 장수한의원



- 척추 교정
- 골반 교정
- 자세 교정
- 근육 교정

- 한방 특진 안내 >> 침, 뜸, 부항, 추나
- 두통, 목, 오십견, 요통, 관절염, 좌골신경, 신경통, 중풍, 위장병, 간장병, 심장병, 신경쇠약, 신경통, 고혈압, 부인병, 갱년기 장애, 어린이 보약, 산전산후 보약
- 각종 보험 환영 직장상해보험, 교통사고 및 스포츠사고 전문 HMO (이지초이스) 통증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

- 디스크 치료 후에도 계속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 팔이 뻣고 저리며 통증이 있거나 감각이 없으신 분
- 목을 돌리기 힘들고 통증이 있으며 손가락에 감각이 없으신 분
- 어깨 통증으로 팔을 들어 올리기가 힘든 분
- 잠을 자고 난 후 갑자기 목을 움직이지 못하며 통증이 심하신 분
- 갑자기 허리를 움직이지 못한 정도로 통증이 심하신 분
- 지긋지긋한 허리통증과 만성 디스크로 뼈뺀척추
- 영치 및 다리가 뻣고 저리며 통증이 있으신 분
- 물건을 들다가 뼈뺀하여 허리가 아프신 분
- 그 외 척추로 인한 모든 질병 걱정 뚫!

- 통증 클리닉 : 중풍마비, 관절염, 두통, 신경통, 요통, 디스크, 허리, 목
- 성 클리닉 : (남성)전립선, 발기부전, 조루, 정력저하, (여성)불감증
- 한방 내과 : 감기, 천식, 고혈압, 당뇨, 위장병, 감작성 질환, 변비, 알러지, 피부병, 비염
- 한방 부인과 : 불임증, 갱년기 장애, 월경불순, 산전 산후 보약
- 한방 정신과 : 치매 및 예방, 우울증, 불면증, 각종 스트레스 질병
- 한방 소아과 : 허약체질, 소아경기, 성장방 및 보약
- 기타 : 비만치료
- 이런분께 ....
- ▶ 이곳 저곳을 다녀 봤지만 효과 못본 분
- ▶ 지긋지긋한 고질병을 앓고 싶은 분
- ▶ 본인은 고통스럽고 불편하나 병원을 가도 병명이 나오지 않는 분

**(213)381-7575 / Cell:(213)219-2739** 3523 W. Olympic Blve. #102 Los Angeles, CA 90019

월-금 오전9시-오후6시, 토요일 오전9시-오후2시 (예약 하신분에 한해서 밤 10시까지 진료)

KOBE PEARL LAS VEGAS

# Hyunmi

## 현미 팬사인회

진주전문회사 고베펄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9월 11일(목) - 12일(금) 2일간  
로텍스호텔 2층 연회장



**천연 양식 해수진주, 남양진주, 아코야진주 전시 특가 판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의 세공기술과 진주메카인 일본공법으로 제작된 화려하면서도 단아한 디자인의 신제품 진주 보석류 전시 특가판매. 경제적인 가격대의 화려한 천연양식진주 부터 최고급 품질의 아코야, 남양진주, 타히티 흑진주 등 3000여점의 제품을 진주전문업체 고베펄에서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 무조건 2014 총정리 초대박세일!!

가수 현미씨와 함께하는 고베펄 10주년 진주보석쇼



Helen Aiko LAS VEGAS KOBEPEARL  
헬렌아이코 천연 홍산호



Helen Aiko LAS VEGAS KOBEPEARL  
헬렌아이코 프리미엄 골드 남양진주



프리미엄 아코야 한줄 목걸이  
세일가격 \$1199



일본공법 한국세공

AKOYA PEARL  
**헬렌아이코 명품 아코야진주 특별세일**

- 아코야 한줄 목걸이 (6mm - 6.5mm)  
AKOYA SINGLE STRAND w/925 Silver Clasp  
Retail, \$3300  
**\$799**
- 아코야 한줄 목걸이 (6.5mm - 7mm)  
AKOYA SINGLE STRAND w/14K Gold Clasp  
Retail, \$3999  
**\$1199**
- 아코야 두줄 목걸이 (6mm - 6.5mm)  
AKOYA DOUBLE STRAND w/925 Silver Clasp  
Retail, \$5999  
**\$1499**
- 아코야 한줄 목걸이 (7mm - 8mm)  
AKOYA SINGLE STRAND w/14K Gold Clasp  
Retail, \$7300  
**\$2599**

\* 헬렌아이코 프리미엄 아코야 진주는 화이트트윈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길이와 크기 및 빛깔에 따라 가격이 소폭 다를 수도 있습니다. 수령이 한정되었으니 구입을 서두르세요.  
\* 모든 헬렌아이코 아코야 제품은 보증서와 워런티가 포함됩니다.

**'학' 스타일.. 고베펄 진주목걸이는?**

고베펄 사의 '학' 스타일 진주 목걸이는 고객님들의 목선을 날씬하고 '찰랑찰랑' 거리게 하면서 착달라 붙습니다. 자신에게 딱 맞는 목걸이를 착용하고 외출하면 마치 학(鶴)이 되어 걷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고베펄 사만이 가지고 있는 실이 아닌 와이어에 의한 독보적인 세공 노하우이기 때문입니다.



**아코야 진주란? あこや真珠**

아코야 진주는 다른 진주 양식법과 다른 아코야라는 조개패에서 한알 한알 일본 현지에서 양식하는 진주라서, 그 빛깔이 영롱하여 남양진주보다 더 많이 사랑받고있는 제품입니다. 미키모로 또는 가리피에와 같은 명품 주얼리업체에서 사용하는 진주입니다. 고베펄 프리미엄 헬렌아이코에서 아낌차게 준비한 아코야 특별 세일 기획전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한국인 정서에는 역시 한국세공 보석이 잘맞습니다!"**



서울 강남 역삼동에 위치한 고베펄 세공 공장에서 100% 제작된 한국공법 유색보석 신제품들을 만나보세요!

KOBE PEARL 문의 전화 **213.389.3887**  
진주전문회사 고베펄 창립 10주년

고베펄과 함께 성장하실  
취급점 모집합니다.



**엘에이 한인타운 일정 2일간**  
2014년 9월 11일(목) - 9월 12일(금),  
행사 장소: 로텍스 호텔 2층 연회장  
Rotex Hotel Banquet 2nd Fl  
341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오후 2시 - 오후 6시 까지  
고베펄이 현미와 함께합니다.

**가든그로브 일정 단 하루**  
행사 일시: 2014년 9월 13일(토)  
행사 장소: 라마다 플라자 호텔  
Ramada Plaza 2층 Pacific Hall  
10022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고베펄 벌몬 갤러리아점 단 하루**  
행사 일시: 2014년 9월 14일(일),  
행사 장소: 벌몬 갤러리아 1층  
Vermont Galleria Market  
Kobepearl store (5가 와 벌몬)  
440 S Vermont Ave Suite #110  
Los Angeles, CA 90020

\*가든그로브와 벌몬갤러리아행사는 현미씨가 참석하지 않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최척성 박사의 특별기고] 교황 프란치스코께 묻는다 ③ 마리아 숭배

### 마리아를 중보자로 믿는 로마가톨릭교회(1)

로마가톨릭교회는 마리아를 구원의 중보자로 믿는다. 로마가톨릭교회 신자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은총을 받는 두 길이 존재한다. 예수와 마리아이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에 버금가는 지위에 올라 있다. '성사위일체(聖四位一體)'라 불릴 정도이다. 마리아는 신앙과 숭배의 대상으로 자리잡았다. 로마가톨릭교회는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로 살았고 원죄가 없으며, 자범죄도 범하지 않았고, 죽자마자 육체를 가지고 승천했다고 믿는다.

마리아 교리는 구원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역할을 격하시키는 이단 사상이다. 마리아 숭배 행위는 우상숭배이다. 성경 어느 부분도 로마가톨릭교회의 마리아 교리와 '성모 숭배'를 정당화하지 않는다. 마리아 숭배는 지중해 세계에 만연한 이교의 여신숭배 사상 및 행습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 1. 일평생 동정녀 교리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마리아가 일평생 동정녀로 살았다는 교리를 로마가톨릭교회의 진리로 확정했다(교회헌장 제52항, 가톨릭교회 교리서 제499조). 공의회 '교회헌장'은 약 4분의 1 분량을 마리아 교리 서술에 할당한다(제52-69항).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로 살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의 형제들"이라는 야고보와 요셉(마13:55)은 어떤 관계인가? 로마가톨릭교회는 그들이 "예수의 한 제자인 다른 한 마리아의 아들들(마28:1)"이라고 한다. 동명이인(同名異人)의 자식들이라는 것이다. '형제들'이란 구약시대의 표현 방법이며, "예수의 가까운 친척을 일컫는 말(가톨릭교회 교리서 제500조)"이라고 풀이한다.

마리아가 일평생 동정녀로 살았다는 교리의 배후에는 아원론적 헬라주의 사상과, 고행주의를 미덕으로 여기는 세속 사상이 자리잡고 있다. 성(性)을 경멸하는 이방 세계의 시각이 로마가톨릭교회를 통제한다. 교회는 플라톤주의 이원론과 고행주의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여 마리아를 신격화하는 교리를 발전시켜 왔다.

성경은 요셉과 마리아가 여러 명의 자녀들 두었다고 증언한다.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했으나,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와 같이 지지 않았으며 아들을 낳자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다(마1:25)"고 한다. 성경으로 잉태된 첫 아들을 낳은 뒤, 다른 자녀들을 낳았음을 시사한다. "저 사람은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어머니는 마리아요,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닌가. 그리고 그의 누이

들은 모두 우리 동네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저런 모든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생겼을까(마13:55-56)." "이 일이 있는 후에 예수께서는 어머니와 형제들,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내려갔으나 거기에 여러 날 머물러 계시지는 않았다(요2:12)." 이 구절들은 마리아가 성생활과 무관하지 않으며, 여러 자녀들을 낳았음을 시사한다.

예수께는 최소한 두 명 이상의 '누이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 동네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저런 모든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생겼을까(마13:56)." 위 번역문은 평양판(성경전서(2010))에서 옮겨왔다.

#### 2. 원죄 없음 교리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1225-1274)는 "마리아에게 불멸의 영혼이 주입된 후, 그녀는 원죄에서 자유로운 존재로 은혜를 입을 수 있었고, 또 은혜를 입었다. 마리아는 원죄 없이 태어났다"고 했다(John Trigilio Jr, Catholicism for Dummies, 2003, 265). 마리아에게 원죄가 없다는 교리는 19세기에 이르러 공식 교리로 등장했다. 교황 비오 9세는 1854년 마리아가 원죄의 오염 없이 아이를 잉태했다고 선포했다.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는 잉태된 첫 순간부터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은총의 특전으로 말미암아 원죄에 물들지 않고 순수하게 보전되었다(The Catholic Encyclopedia, VII, 674)"고 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마리아의 평생 무죄설을 확정했다. 평생 죄의 온갖 더러움에 물들지 않았신 분이요(교회헌장 제56항).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녀의 전(全) 지상 생애 동안 어떠한 종류의 죄도 범하지 않았다. ... 일평생 모든 자기 죄(자범죄)에 물들지 않았다(가톨릭교회 교리서 제411조, 제508조)"고 한다.

마리아에게 원죄가 없는가? 자범죄와 무관한가? 이 교리는 마리아가 아담과 하와 이후에 아닐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 3. 중보자 마리아 교리

교황 베네딕트 15세(1914-1922)는 마리아의 '구원 협력설', 곧 중보자 마리아 교리를 선언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이를 확정했다. "복된 동정녀께서 사람들에게 미치는 모든 구원의 영향은 사물의 어떤 필연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호의에서 기인하고, 또



최척성 박사  
브니엘신학교 총장

그리스도의 넘치는 공로에서 흘러나온다(교회헌장 제60항)"고 한다.

마리아는 십자가에서 운명하는 아들과 함께 수난을 겪었다. "영혼들의 초자연적 생명을 회복시키고자 온전히 독특한 방법으로 구세주의 활동에 협력했다(제61항)."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 인류 구속 역사에 참여했다. 구원 사역에 협력했다. 마리아는 승천한 뒤에도 구원사역 임무를 계속한다. "이 구원 임무를 그치지 않고 계속하시어 ...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얻어준다. ... 그 때문에 복된 동정녀는 교회 안에서 변호자, 원조자, 협조자, 중개자(중보자)라는 칭호로 불린다"고 한다. "하나님의 유일한 신성이 피조물들 안에서 실제로 갖가지 모양으로 퍼져 나가듯이, 구세주의 유일한 중개도 피조물들 가운데에서 그 유일한 원천에 참여하는 다양한 협력자를 가로막지 않고 오히려 불러 일으킨다(제62항)"고 한다.

중보자 마리아 교리는 하나님이 마련한 구원의 길 밖에 또 다른 길, 다른 중보자가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유일한 중보자(중재자)이신 그리스도의 존엄과 능력을 침해한다. 유일한 구원자이자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역할을 모독하고 격하시킨다. 로마가톨릭교회 신자들에게 실제로 구원의 길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다. 이러한 이유로 신자들은 마리아에게 직접적으로 기도한다.

#### 4. 마리아 승천교리

교황 비오 12세는 마리아가 죽는 순간에 승천했다는 교리를 선포(1950)했다. 로마가톨릭교회는 "원죄에 물들지 않고 평생 동정녀였던 하나님의 모친 마리아가 지상의 생애를 마친 뒤 영혼과 육신이 함께 전상의 영광에 들어 올림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계시된 신앙의 진리이다(The Catholic Encyclopedia, XIII, 185)"고 믿는다. 성경은 마리아의 죽음에 관해 침묵하지만, 교회의 '전통-성전(聖傳)'은 그가 천국으로 들리어 올라갔다고 가르친다고 한다(Catholicism for Dummies, 265-

266). "마리아가 지상 생애의 여정을 마쳤을 때 몸과 영혼은 하늘 영광으로 올림을 받아 주님에 의하여 만물 위에 여왕(Queen)으로 존귀하게 되었다." 마리아가 "주님께로부터 만물의 여왕으로 추대받았다(교회헌장 제59항, 가톨릭교회 교리서 제966조)"고 한다.

성경 어디에도 마리아가 지상 생애를 마치고 영혼과 육신이 함께 승천했다고 하지 않는다. 만물 위에 여왕으로 등극했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한 가능성을 떠올리는 '힌트'조차 주지 않는다. 로마가톨릭교회가 마리아에게 부여한 '하늘의 여왕'이라는 칭호는, 원래 바벨론 신전의 여신을 가리키는 이름이다. 로마가톨릭교회는 이교 명칭을 마리아에게 부여하여,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이신 그리스도의 왕권을 찬탈하는 불경죄를 범하는 격이 되게 했다.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하늘의 여왕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왕권 일부를 찬탈한 범죄자이다. 대역죄인이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종래의 마리아 교리와 교황 비오 12세의 선언들을 고스란히 추진했다. 마리아는 "마침내 원죄의 온갖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티 없이 깨끗한 동정녀는 지상 생활의 여정을 마치고 육신과 영혼이 하늘의 영광으로 올림을 받고 주님께 천지의 모후로 들어 올려져 주님들의 주님이며,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자인 당신 아드님과 더욱 완전히 동화되었다(교회헌장 제59항)"고 한다.

로마가톨릭교회는 마리아를 향한 기도를 장려한다. 마리아는 하늘에서도 우리의 '변호자'로서 구원 임무를 그치지 않고 계속한다. 그는 "교회 안에서 변호자, 원조자, 협조자, 중개자(중보자)라는 칭호로 불린다(제62항). 모성애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 그리스도는 효성이 지극하기 때문에 어머니 마리아의 청을 거절하지 않는다(제62항). 그래서 신자들은 "은총이 가득한 마리아님! ... 이제와 저의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하고 기도한다.

로마가톨릭교회 신도들에게 현실적으로 은총을 받는 길은 둘이다. 신자들은 중보자(중재자, 중개자) 마리아 조형물 앞에 촛불을 켜놓고, 그 상을 향하여 손으로 십자가 표시를 하고 합장으로 예를 올리며, 절을 한다. "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는 성경의 계명에 역행하는 종교 행위를 한다.

#### 5. 우상숭배

마리아는 가장 복 있는 여인이다(눅

1:42). 참으로 존경을 받아 마땅한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성육신 과정에 자발적으로 수종을 들었다. 구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은 역사적 인물이다.

그러나 마리아는 인간이다. 예배, 기도, 숭배의 대상이 아니다. 원죄가 없거나, 자범죄가 없거나, 승천했다거나, 인류 구원의 중보자, 중개자라는 교리는 성경적 근거가 없다. 미신과 이교신앙과 광신과 교회 권력의 지의 결과이다.

로마제국 황제 콘스탄티누스 통치 이후에 교회 안에 들어온 이교는 서방교회의 미신적 교리를 부추겼고, 마리아 교리와 마리아에 대한 우상숭배 행습을 가져왔다. 에베소공의회(431)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神母)'라고 규정했다. 이 결정은 로마가톨릭교회와 개신교에서 정통신앙으로 수용되고 있다. 마리아를 신격화하는 누앙스를 지닌 이 칭호는, 본디 마리아를 높이는 표현이 아니라 그가 낳은 예수 그리스도 위격의 특성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마리아에 대한 로마가톨릭교회의 흠숭, 공경, 상경은 실제 교회 생활에서 인간숭배로 자리잡았다. 신자들은 마리아 상을 향하여 절을 하고 공경의 예를 표한다. 십계명의 제2계명에 저촉되는 경배, 예배, 숭배 행위를 한다.

로마가톨릭교회는 십계명에서 우상숭배 금지 계명, 곧 제2계명을 배제한다. 열 번째인 탐심에 관한 계명을 둘로 나누어 열 가지 계명으로 만들어 사용한다. 우상숭배에 대한 계명을 제1계명에 포함시켜 그 명령을 축소, 마비시킨다.

로마는 성상숭배, 성유물숭배, 성인숭배를 하고 있다. 또 일제 말기 정적 동기로 일본의 신사참배, 중국의 공자숭배, 한국의 조상제사를 허용했다. 여러 해 전 김수환 추기경은 유생 김창숙 선생의 묘소에서 제물을 바치고 몇 차례 큰 절을 하고 술을 따라 바쳤다. 한국 천주교회 사제 문규현 신부는 국토를 남북으로 통과하는 삼보일배 행사의 출발식을 하는 계룡산 신원사 중악단에서, 산신령 화상을 향하여 불교 승려와 함께 큰절(사제서품 때처럼 바닥에 완전히 엎드리는 형식)을 하고 제물과 술잔을 바쳤다. 한국 천주교회 신자들은 불교 사찰의 템플스테이 행사에 참여하고, 불교의 108 참회기도문을 외우며, 불상을 향하여 절을 하기도 한다. 십계명에서 제2계명을 빼버린 결과는 다양한 형태의 우상숭배 활동으로 나타난다. (계속)

제18차  
1일 신약통독

이번 노동절 휴일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루를 드림으로 한 평생 간증할 은혜를 체험하십시오

# 하루에 신약 27권 완독

뜻깊은 노동절 휴일을 맞이하여 신약 27권 260장 전 절을 하루에 통독하는 집회를 아래와 같이 준비하였습니다. 신약성경 전 권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통째로 우리 마음에 담겨질 때에 놀라운 감동과 새로운 깨달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처럼 맞이하는 휴일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영과 육이 새롭게 활력을 얻는 복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 2014년 9월 1일(월) 오전 8시(시간엄수)

**장소** 갓스윌연합교회(담임 이희철 목사)  
904 E. D Street, Ontario, CA 91764 (909) 983-0994

**참가비** 30불 (식사 및 간식)

**강사진**





안성기 목사    이희철 목사    김동원 목사

**교회 찾아오시는 길**  
(909) 983-0994

904 E. D Street, Ontario, CA 91764  
온타리오 공항 근처 (D Street과 Allyn Ave 사거리)



**주최: 미주요한선교단 (대표 안성기 목사)**

**후원: 갓스윌연합교회    미주복음방송    할리웃효순장로교회    크리스천헤럴드(라디오방송 AM1650)    CGNTV USA**

# 북새통

##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 신간추천

#### 옴을 위한 변명

안석모 | 두란노 | 322쪽

폐암 진단을 받고 투병 생활을 하면서도 가르치는 사역을 중단하지 않았던, 목회 상담학자인 저자가 SNS에 올린 '자신을 객관화한 탐구적 투병기'를 기초로 했다.

'영성신학의 그루터기'라 불리는 저자는, 성경 속의 옴을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탁자 위 이론'에서 '침상 위 실제'로 옮겨진 '고통의 신학'을 '해석에서 공감으로'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 나를 죽이고 성령을 품어라

앤드류 머레이 | 브니엘 | 272쪽

특유의 영향력 있는 경건주의 문체로 널리 사랑받고 있는 저자의 이 고전은,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한 그리스도인의 영적 승리의 진정한 비밀을 말한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 힘의 근원이신 성령님이 우리가 기도를 더욱 잘 이해하여,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한다.



#### 너무 늦기 전에 들어야 할 죽음학 강의

최준식 | 김영사 | 248쪽

죽음학의 권위자가 안내하는 '삶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다. 저자는 '죽음 공부'는 젊을 때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온 다음 시작하려면 너무 늦기 때문이다. 느닷없이 노년을 맞이하면, 인지상정상 죽음을 더 피하고 싶어진다. 죽음을 공부해야, 삶이 깊어진다. 그리고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이다.



#### 나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 솔 | 323쪽

세 차례, 총 6시간 동안의 인터뷰를 통해 나온 교황 프란치스코와의 공식 대담집이다.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 책을 쓴 안토니오 스파다로 신부는 교황과 같은 수도회 출신이다. 교황의 '움직이는 생각'과 영성 및 예술과 기도에 관한 생각이 이 대담에서 드러난다. 비가톨릭 신자들을 위해 가톨릭 용어 등에 대한 주석 및 용어풀이를 달았다.



## REVIEW

### “아브라함 당신도 믿음이 흔들리나요?”

밤바다에 홀로 떠다니는 작은 배 한 척처럼 막막할 때... <바랄 수 없는 날의 믿음>

“어떤 이들은 ‘아브라함’의 이름만 듣고도, ‘야! 주일학교 시절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이야기가 또 시작되는구나!’하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인도하셨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사는 데 바빠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영위하던 사람들, 특히 중년 남성 가장들에게 큰 필림과 도전이었던 김남준 목사(열린교회)의 창세기 설교가 <바랄 수 없는 날의 믿음(두란노)>으로 묶여 나왔다. 믿음이 흔들리는 평신도는 물론, 초신자들도 쉽게 읽을 만하다.

책은 '어려움: 약속의 땅에도 궁핍은 오는가?', '외로움: 홀로 있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두려움: 인생의 두

려운 밤을 지날 때', '영적 침체: 별빛도 사라진 영혼의 밤바다에서', '순종과 회복: 눈부신 새 아침은 어떻게 열리는가?' 등 5부로 나뉘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의 일대기 전체를 통해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전해주고 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은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신실한 불드심을 빼고 보면 겁 많고, 의심 많고, 얇은 피나 쓰러 하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고 전한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있다는 것.

저자는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속에서 끊임없이 깨어지며 조금씩 그분 곁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는 “비록 일은 잘 하지만 깨뜨려지는 일이 없는 사람보다, 좀 부족하지만 깨뜨려질 줄 아는 사람이 훨씬 더 희망 있는 인생”이라며 “그렇게 깨어지는 과정에서 그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더 순전한 존재로 자라갈 것이기 때문”이라고 격려한다.

참 이상한 것이, 인생이 험통할 때는 홀로 있어도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그러나 인생의 두려운 밤을 지날 때는 옆에 사람이 있어도 외롭고, 별빛조차 없는 밤바다에 홀로 떠다니는 작은 배 한 척처럼 막막하고 쓸쓸하기만 하다.

이때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성도의 교제가 필요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 삶은 정반대다. 어두움이 몰려올수록 교회에서 멀어진다. 그럴 때는 '이것마저 놓치면 영혼의 밤 속으로 깊이 들어가 헤어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



바랄 수 없는 날의 믿음 김남준 | 두란노 | 224쪽

를 구하는 일이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마음을 어지럽히는 다양한 문제들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케 하는 여러 번민들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 우리의 믿음은 바람 앞의 등불과 같이 쉽게 꺼지는 것이므로, 바람이 불어오면 지키고 기름이 떨어지면 채우며 매일 매일 살피면서 믿음을 지키려는 신자의 거룩한 분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모든 사고와 판단의 중심이 되고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될 때, 우리가 가진 모든 재능과 은혜, 그리고 삶이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 성실하심과 진실하심과 선하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어가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복과 동일한 복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이대웅 기자

**Gold Finger**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전화주시면 출장 주문, 가봉 완성 후 배달

Business hour 8:00am to 7:00pm  
www.facebook.com/GoldFingerTailorLA

**골드핑거**  
남녀맞춤, 명품 옷수선



#### Master Tailor-Byung Ho Kim (Kyung Sik)

- 법무부 직업훈련원 감독위원 역임
- 서울지방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 역임
- 한국복장기술경영협회 상임 이사
- 한국아트패션 회장
- 90년 한국남성복기술경진대회 창작 최우수상
- 94년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 회장상
- 95년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 회장상
- 대림 라사운영 1979-2000

맞춤 양복 이라서 좋습니다.

한울한울, 장인의 혼을 담은 맞춤 양복, 고객의 마음까지 담은 맞춤 양복, AS는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삶과 소명을 혁신시킬, 새로운 일의 관점

성경에서 배우는 일(work)에 관한 모든 것 <일의 신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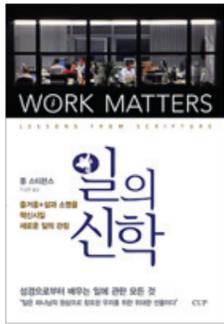
“힐링 붐을 일으킨 〈아프니까 청춘이다〉에서, 트렌드 연구가 김난도 교수(서울대)는 “내 일(My Job)을 하라. 그리고 내일(Tomorrow)이 이끄는 삶을 살라”고 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파헤친 다큐멘터리와 함께 쓴 책 〈내:일(FUTURE MY JOB)〉에서는 “일자리는 단순히 돈과 생계의 문제가 아니다. 인간의 사회적 가치와 존엄에 관한 문제”라고 했다.

〈내:일〉에서 김 교수는 ‘일하는 시간’과 ‘일에 대한 부담감’을 세계 최고이지만 ‘일을 통한 행복’은 최악인 우리네 현실에서, 일의 목적을 다시 생각한다. 이를 통해 단순한 ‘직장인’이 아니라 일의 의미와 가치를 아는 ‘내:일’을 가진 ‘직업인’의 세계적 사례들을 우리에게 전한다. 또 일의 가치를 찾는다는 것은 거창한 철학이나 전문지식이 아니라, “그저 스스로에게 일의 동기를 묻고 당장 눈앞에 담긴 나의 내일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묻는다. “일주일 동안 가장 행복한 순간이 고작 일 끝나는 ‘불금(불타는 금요일)’ 하루 뿐이고, ‘황토(황금 같은 토요일)’를 지나 일요일 밤이 되면 급속

도로 우울해져, 결국 ‘월요일’에 시달린다. 하지만 월요일이 되어 일을 시작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때, 진정한 ‘일을 통한 행복’이 실현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우리에게 다른 어떤 사례들보다 먼저 ‘성경’이 있다. 〈평신도를 세우는 목회자(미션월드)〉, 〈하나님의 사업을 꿈꾸는 CEO〉, 〈일 삶 구원(이상 IVP)〉 등을 쓴 평신도 신학 전문가인 ‘일터 신학’ 권위자인 폴 스티븐스 박사(R. Paul Stevens)는 〈일의 신학〉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일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제시한다. 그는 ‘일의 신학’에 대해 “성경 역사 속에서 다양한 배경에서 조명되는 ‘일에 대해 배우는 과정이자, 성경의 통일성을 지지하는 작업”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저자는 성경 전체를 통해 주요 인물들의 ‘일에 대해 살피고 있다. 책을 읽다 보면, ‘성경 속에 일과 관련된 이야기가 이렇게 많았나’ 하고 놀라게 된다. 물론 성경 주요 인물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일’을 했던 이들이지만, 어부나 목동, 총리 등 다른 직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사



일의 신학 | 폴 스티븐스 CUP | 288쪽

례들도 적지 않다. 저자는 이런 부분들에 현미경을 들이대고, 의미를 찾아낸다.

태초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한 일’을 도모하기 원하셨다(창 1:28). 저자는 “일은 인간의 발명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단언한다. 일은 영적 성장을 이루고, 이웃을 섬김으로 공동체를 세우며, 피조물의 잠재력을 끌어 올린다. 일을 통해 우리는 창조주를 흉내 내며 닮아간다. 하지만 하나님과 아담의 언약은 깨어졌고, 일에는 ‘땀과

노동’이 필요해졌으며, 일터는 ‘가시 덩굴과 엉겅퀴’로 채워지게 됐다(창 3:16). 그의 아들들은 일의 결과로 얻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으나, ‘적대적 경쟁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상대방을 제거해 버리고 말았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일이 자세히 묘사되고 그 복잡함과 만족함이 그대로 기록된 아담은, 그야말로 ‘사랑’을 위해 일했다. 사랑은 온갖 일을 ‘사역’으로 변화시켰고, 믿음과 소망으로 행했다.

이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돼, 우리의 일은 하나님의 장기적 의도, 하나님 백성과 피조물을 새롭게 하시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요셉의 인생사를 통해 보는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며 하나님의 일을 이 세상에서 하는 것”이다.

시아머니를 위해 밭에 남겨진 이삭을 주웠던 룻의 이야기는, ‘가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일하는 이들에게 희망을 전해준다. 룻의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배려하신 율법을 만드셨기 때문 아닌가. “하나님은 생존을 위한 일 그 자체를 허락하셨다. 생존을 위한 일

은 귀천을 떠나서 귀하고 선한 일이다. 경건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다. 나아가 대부분의 생존적 일은 사람들의 몸과 마음, 영혼이 함께 움직여야 하며,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들의 일마저 주님을 위한 것일 수 있다.”

이밖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좇아 왕의 일을 감당했던 다윗, 왕의 큰 신임을 얻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대로 술 관원이 돼 지혜롭게 성전을 재건한 느헤미야, 잡언에 나오는 게으름뱅이와 현숙한 여인, 지혜자, ‘선교사’로 파송됐던 요나, 일을 했던 마르다와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 자비량 사역을 했던 바울과 브리스길라·아굴라 부부 등을 통해 일에 대해 다양한 성경적 관점을 논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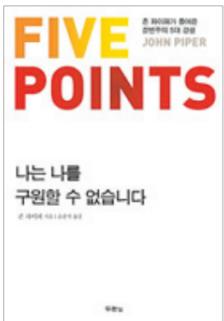
스티븐스 박사는 책을 통해 “우리의 삶과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소명을 혁신시킬 수 있는 새로운 일의 관점(work-view)을 발견해 보자”고 권한다. 여름휴가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이 시점에서, 또는 취업을 앞두고 ‘내:일’을 고민하는 젊은이들이 퍼블 만하다.

원제는 Work Matters이다.

이대용 기자

존 파이퍼가 ‘튤립(TULIP) 교리’ 에서 얻은 10가지 간증

은혜의 교리는 하나님의 엄위하심 부각시켜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존 파이퍼 | 두란노 | 168쪽

“나는 칼빈주의자로서 그 체계를 옹호하려는 게 아니라,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질문을 던지며 출발한 것이다. 나는 그 어떤 사상 체계보다도 성경에 궁극적인 권위를 둔다.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오랜 씨름을 거치며 나에게 점점 깊어지는 확

신이 있다. 칼빈주의 5대 강령에 대한 가르침은 성경적이며, 진리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해 주는 소중한 관문의 역할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복음주의 지도자인 존 파이퍼 목사가, ‘튤립 교리’로 잘 알려진 칼빈주의 5대 강령(the five points of Calvinism)을 풀어쓰게 된 이유이다. 5대 강령은 ‘전적 타락(Total Depravity)’, ‘무조건적 선택(Unconditional Election)’, ‘제한 속죄(Limited Atonement)’, ‘불가항력적 은혜(Irresistible Grace)’, ‘성도의 견인(Perseverance of the Saints)’(저자는 2와 4를 바꾼 순서로 사용)을 말한다.

저자는 “나는 존 칼빈을 무조건 신봉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보기에 그의 가르침에도 틀린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나는 이 5대 강령에 동의하고 기꺼이 ‘칼빈주의자’로 불리고 싶다”며 “내가 보기에 이 칼빈

주의 입장이 성경에 충실해서이다. 우리의 궁극적 권위는 성경에 있다”고 말한다.

파이퍼 목사는 5대 강령의 역사적 뿌리와 그 의미를 간략히 살피고, 5가지에 대해 성경을 통해 하나 하나 상론한다. 전적 타락은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다’, 불가항력적 은혜는 ‘주권적 은혜의 빛을 비추셔서 회심할 수 있게 하신다’, 제한 속죄는 ‘예수님은 자기 양의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을 자신의 피로 완벽하게 사셨다’, 무조건적 선택은 ‘날 사랑하셔서 값없이 은혜를 베푸셨다. 내가 한 일로 선택받은 게 아니다’,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신다’라고 간단히 설명한다.

5대 강령을 설명하는 여러 책들과 확연히 다른 부분은 바로 2부 ‘삶으로 증언하는 칼빈주의 5대 강령’이다. 존 파이퍼 목사 자신이 5대 강령에 깊은 영향을 받은 개인 간증들을 열 가지

로 정리해 전해준다.

그 중 하나인 ‘신성한 것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막아주다’를 보면, “우리 문화의 재앙은 겉모습과 잔재주를 떠받드는 천박함이고, 우리는 피상적이고 하찮은 것들에 중독돼 있는데 그 중독을 지속시키는 주 원인의 하나가 텔레비전”이라며 “하나님이라는 개념까지도 천박함 속에 휩쓸려 들고 말았고, 우리는 이에 신성한 것들을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은혜의 교리는 하나님

의 엄위하심을 부각시켜 준다”며 “내가 한 착의 배려면 그것은 배의 균형을 잡아주는 배다짐이다. 그것은 나에게 큰 기쁨을 주고, 내 마음을 천박함이라는 전염병에서 지켜준다”고 간증한다.

이후 히포의 어거스틴과 조나단 에드워즈, 조지 헛필드 등 5대 강령에 대한 여러 고백과 증언들을 소개한다. 그리고 “이제는 당신 차례”라며 제임스 패커의 당부와 찰스 스펄전의 기도문을 남겨놓았다.

이대용 기자

**최첨단 3D 전신 스캔 검사**

다나병원의 3D 전신 스캔 종합검사는 신체내 루미나 통증없이 신속정확하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뇌, 심장, 혈관, 간, 위, 척추 등 전신건강 상태 뿐만 아니라 위험 요소들을 미리 측정하여 예방도 가능하게 하는, 밀착이 경험하지 못한 전신기능의 검사를 합니다.

**유전자 생약치료** 2000여개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질병위험과 전반적인 건강상태 상담, BAM(bio active molecule; 생리활성물질)으로 치료를 합니다.

**다나병원** 다나병원은 Well-Being과 Aging Care를 목표로 통합의학을 지향합니다. 621 S.Virgil Ave. #252, Los Angeles, CA 90005/ T.213.487.0691

입으면 허리문제가 해결되는 **희안한 옷!!**

너무 쉬운 NB 코르셋의 원리를 알면 통증의 원인을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NB 코르셋은 내 몸을 멋진 틀(NB 코르셋 깁스)에 넣어 **자연 치유력**을 이용한 과학과 지혜로 미와 건강을 만들어 내는 **결작품**입니다.



쓰러진 토마토를 세우는 것은 **버팀목**입니다. 의사가 척추를 바르게 세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깁스를 하지 않고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버팀목(기립근)이 약해서 제대로 지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NB 코르셋은 늘어지지 않는 특수 천으로 깁스를 대신하고 코르셋 속의 10개의 버팀목이 약한 근육을 대신하여 골반과 척추와 경추를 바르게 교정해줍니다.

**NB 코르셋이 필요하신 분**

- >> **디스크환자**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척추측만증 교통사고
- >> **각종 질환**  
요실금 중풍 관절염 손발 저림 만성피로
- >> **체형교정**  
골반 틀어진 분 허리 굽으신 분 O형다리 거북이목
- >> **미용효과**  
목주름 많은 분 얼굴비대칭 복부비만 부정교합



**NB CORSET Tel: 323.316.6815**

http://blog.daum.net/ysbla

3456 W.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무료** 광고지참시 방문하신 모든분께

\*자세 사진 촬영 \*현미경 혈행 검사 \*체질 검사

#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중고차 황제 김기형

## 웨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213.435.5900 714.743.1000

933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는 UCLA의 대학 박사 40여년간 연구 개발한 PRO-Z는 미국FDA에 치료 약으로 인정되어 주성분인 아연과 크롬으로 의약품에서 획기적인 연구개발로 임상평가 받고 있다. 특히 미국의 재향군인 병원에서 임상실험 결과 최상의 6개월복용시 혈당에 탁월한 효과로 개선됨을 확인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췌장 베타세포의 기능 복원을 개선시키는 PRO-Z가 해결해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수만명의 당뇨약이나 인슐린으로 혈당 유지를 하는데 그쳤으나 PRO-Z는 위장에 인슐린 분비를 확실하게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제제로 세계 최초로 미국 정부로부터 특별한 지원을 받고 있는 당뇨 개선제입니다.

## 지긋지긋한 당뇨병 탈출

당뇨병을 앓고 있던 당뇨병이 이제는 치료가 됩니다. 새로운 당뇨 개선제 PRO-Z를 6개월만 복용하시면 지긋지긋한 당뇨병에서 해방되어 정상인과 같은 건강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여 줍니다.



1병 \$76  
3병 \$200  
6병 \$372

PRO-Z USA 미국 판매처

213.434.1170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당뇨병 가능 개선제 PRO-Z

##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BF1090)인 계기 송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지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TONERSUM** 칼라레이저 프린터 리스(임대) \$49.99/mon 선착순 5명

**\$69.99** \$149.99 **SAVE: \$80.00 (53%)**

MULTIFUNCTION LASER PRINTER 레이저 프린터(칼라흑백) Blow Out Sale!! 삼성토너 스페셜 리스트

SAMSUNG SCX SERIES SCX-3405W

HP, Brother Big Sale Tel. (626) 802-5712

사고 판다 New & Used Buy & Sell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Select color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라지용 Boltless Shelving

창고용 Pallet Rack

중고 선반 대량 보유

중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99센트 미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딜러십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커튼 전문 가 주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션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43406 Stancliff Ave. Lancaster, CA 93535

**K.T. 택배 T. 213-365-8588**

말도 안되는 가격 \$ 6.99 초고속 픽업 & 배송!!

전화 한통화로 당일무료 픽업!

무료포장 (박스, 충격흡수제 무료)

최저 가격!! 인터넷 사업자 대박우대

소량화물 4개중 1개 공짜!

"가격은 낮추고 서비스는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법무사 사무소 법적 해결**

소장: Kenny Oh (323)377-5702 ko7law@gmail.com

변역 (학술/사업/개인) | 법정통역, 소송/방어서류

민사법 의도/과실/사기/부당 행위 피해, 입주자분쟁(소송/방어) 접근 금지 법원 명령

계약법 작성/분석/분쟁/수금문제 가정법 약식/일방이혼

1543 W. Olympic Bl. #580 LA. CA 90015 Law Office of R. Song

모/든/문/제/체/류/신/분/과/무/관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온돌마루**

UL마크 인증제품 사용 NRTL(미국 전기 안전 규격제품).

획기적인 절전제품/ 전자파제로

안방 아랫목, 거실, 기도실, 유아방, 잠잘방 설치중

피코 건축자재 (피코+카탈리나) 213)256-4884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트랜스미션 타이밍벨트 브레이크 튜업정비

10% 할인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시온마켓 내 **치우차우만두**

찐빵 고기만두 김치만두  
야채만두 물만두 군만두

교회 단체주문 환영합니다. 냉동만두 판매/매달합니다.

CHIU CHAU MANDOO 213.368.0922

3500 W. 6th St., Suite 100 Los Angeles, CA 90020

**한방생리대 도.소매 G. Together Inc.**

인삼생리대  
익모초생리대  
한방생리대

Edward Kim 김인태, CEO  
213-392-2323 (Korean) 213-500-5896 (English)  
3544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 G\_Together\_Inc@yahoo.com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과와 양,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쇼스피드 다이어트** 치아미백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1주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배배는 속변약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한달 \$50

하머니크림 (습윤크림)  
임신 중 트살 방지  
건선으로 인한 붉은 주름(얼굴, 목)  
트고 갈라진 피부 보습(발 뒷꿈치)

치질(항문하혈, 통증)  
독소제거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불임증(자궁축, 하혈)

우울증  
관절염  
원형탈모  
구연산 캡슐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한국어: 213.380.7800 각종보험취급  
영어: 213.380.6868 (오바마 케어 포함)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win HYUNDAI CARSON** 원현대 칼슨 HYUNDAI

**이번달 스페셜 리스 프로그램 이벤트** "2015년형 뉴 제네시스 입하"

Genesis 2015 ALL IN STOCK @ \$36,120  
Genesis 2014 ALL IN STOCK @ \$36,120  
Equus 2014 signature ALL IN STOCK @ \$61,920

ALL NEW 2015 GENESIS SEDAN Lease for \$249 PLUS TAX @ 36 MONTHS

Lease for \$399 PLUS TAX @ 36 MONTHS

현대차를 원하시는 당신께 최고의 가격을 제공하겠습니다!!  
www.winhyundaicarson.com  
한인타운에서 15분에서 20분거리 **브로커 환영**

주말에도 오픈합니다.  
2301 East 233rd St. Carson 90745

유학생, 상사 주재원 도와드립니다. Bad Credit, No Credit 연락주세요. 미 서부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딜러

All advertised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any electronic filing charge, and dealer document processing charge, and any emission testing charge. All vehicles are at Carson location. Offers available through Jan. 27, 2014

# ‘예배 인도자’에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로

## 한국 온누리교회 예배사역본부장 김영진 목사

한국 온누리교회 예배사역본부장인 김영진 목사가 레스토레이션 주최 예배 세미나 인도 차 애틀랜타를 찾았다.

애틀랜타 방문은 처음이라는 김 목사는 “예배 인도자에서 예배 가이드로, 나아가 ‘삶의 예배자(Living Worshiper)’로의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악을 전공해 이태리 유학 중 사역자로의 부르심에 순종한 뒤 15년째 예배인도 사역의 한길을 가고 있는 김영진 목사는 교회 사역을 중심으로 1999년부터 ‘다리 놓는 사람들’ 사역과 예배컨퍼런스에서 강사로 섬기고 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캘리포니아 앨버인 온누리교회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이민목회를 경험하기도 했다.

현재 온누리교회 예배사역본부장으로 온누리교회와 지교회들의 전체 예배를 기획하고 총괄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개인 앨범 ‘Walking Worshiper’와 온누리워십미스트리에서 함께한 ‘찬송가’ 앨범 등을 출판하

기도 했다.

“예배 사역자들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사역이 막히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된다. 노래나 음악뿐 아니라 삶의 열매가 맺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교회 리더십들이 예배 인도자에 대한 양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어떻게 모든 성도들을 예배자로 세워갈 것인지 고민하고 목회 방향을 세워 가야 한다는 점이다”라고 목회 리더십과 예배 사역자들간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한 김영진 목사는 “예배 인도자 혹은 찬양 인도자 한 사람만 세워 놓고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사역자를 세울 때 누구보다 세심한 영적인 보살핌이 필요하며, 영적으로 준비되어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많은 경우 어느 정도 신앙의 기본이 잡힌데다 ‘기타를 제법 쳐서’, ‘찬양을 잘 해서’ 찬양 인도자로 세워지곤 하는데, 자칫 자신이 맡은 부분

만 집중하게 돼 본의 아닌 실수를 저지러 수 있기 때문이다. 예배 인도자는 큰 틀을 보고 예배가 무엇인지, 찬양이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 ‘드릴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들의 위치는 철저히 회중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돕는 것이라는 것도 덧붙였다.

“많은 찬양 인도자들이 제대로 양육 받지 못한 채 서기 때문에 어떻게 회중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영광을 돌리게 할까 고민하기 보다는 자신이 주인공이 되려고 한다. 도움이 아니라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찬양 인도자, ‘Worship Leader’라는 말 보다는 찬양 가이드라는 말이 더 적합하다고 본다. 가이드는 반 발짝 앞서 보여주고 안내하는 사람이다. 억지로 끌고 가지 않는다. 나아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 ‘Living Worshiper’가 되길 바란다.”

예배인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묻자 ‘회중들에 대한 마음

을 받는 것’이라고 답한 김영진 목사는 회중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지, 어떤 고백을 하는지 알고 그에 맞는 곡을 선곡해야 하고 콘티를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별히 새로운 노래를 선곡할 때는 최소한 4주 정도는 불러 익숙해져 그 노래가 어색하지 않고 자신들의 노래가 된다는 경험을 나누기도 했다.

이민교회 회중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는 한국교회와 다를 것이 없지만 조금 더 갈급하고, 문화적으로는 한국교회보다는 조금 더 닫혀있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민 온 시점에 따라 한국을 떠났던 그 시대로 사고가 굳어져 절대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노래에 대한 거부감도 상대적으로 큰 편이라는 것이다.

“예배 사역자로서 교회를 많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 음악적 노력뿐 아니라 영적인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되며, 단순히 찬양뿐 아니라 예배 순서와 담당자 배치, 컨텐츠와 레파토리 개발, 전체적인 콘티 등 기본적인 예배의 영성은 이어가면서도 예배에 따라 회중을 고려하고 상황을 생각해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온누리교회 예배사역본부장 김영진 목사

있도록 해야 한다.”

그는 온누리교회의 사명과 궤를 같이해 앞으로 한국교회와 해외 한인교회들에 좋은 예배문화를 보급하고 교회 예배 사역에 필요한 리소스와 노하우를 나누는 일, 성도들의 예배문화 체질을 개선하는 일, 세대 간의 차이를 줄여 모두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만들어 가는 일 등을 하고 싶다는 비전을 나누고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박현희 기자

## 평범했던 ‘주부’는 어떻게 대형교회 담임목사가 됐나

‘목욕탕 교회’, ‘고백공동체’, ‘여자 목사’, ‘큐티’ 바로 우리들교회를 수식하는 말들이다. 이 교회 김양재 목사는 여성 목사로서는 드물게 성도 1만여 명의 대형교회를 담임하고, 큐티를 통한 말씀 목상을 신앙의 으뜸 중 하나로 꼽는다. 그가 지난 30년 동안 큐티를 통해 깨달은 것 중 하나는 다름 아닌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올해 6월 창립 11주년을 맞은 우리들교회 성도들은 담임목사를 닮아, 죄의 고백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김양재 목사

김양재 목사는 다윗과 같은 치유자가 되고 싶었다. 그 역시 상처가 많았기에, 함께 아파하며 같이 울고, 더불어 회복되고자 했다. 11년 전, 처음 예배를 드렸던 휘문고등학교 학생 식당은 지금도 그렇지만 냉·난방이 전혀 되지 않는 곳이었다. 그런 곳에 여전히 약 5천명(나머지 약 5천명은 지난 2010년 새로 지은 판교체플에서 예배를 드린다. -편집자 주)이 모인다.

이렇게 김 목사가 성도들의 내면을 만지는 힘은 그가 오래 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해온 ‘큐티’(QT, quiet time)에서 나온다. 말씀의 깊이는 목상은 그야말로 ‘혼과 영과 및 관결과 꿀수를 찢러 쪼개는’ 힘을 발휘했다. 누군가에겐 하찮을 수도 있는 큐티가 그에게 작은 ‘겨자씨’가 되어, 어느새 아름답디나루로 성장했던 것이다.

변한 것은, 당연한 말이지만, 김 목

사가 먼저였다. 그는 스스로 “지극히 평범했던 주부였다”고 고백한다. 그러나 주부로서 평범했는지 몰라도 여자로서, 아니 인간으로서 그다지 평범하지 못했다. 장로 가정이었지만 유교적 가풍이 강했던 시집에서 그녀는 숨을 죽여야 했고, 남편 역시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김 목사가 할 수 있었던 건 그저 말씀을 붙드는 것뿐이었다. 그렇게 그 안에서 길을 찾고 싶었다.

가랑비에 옷이 젖듯, 말씀은 점점 그녀의 삶으로 젖어들었다.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였다”는 김 목사가, 가장 먼저 보았던 것이 바로 ‘죄’다.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또한 알아갔다. 말씀은 그녀로 하여금 세상의 복(福)이 아닌 천국의 ‘팔복’을 사모하게 했고, 치욕을 무릅쓰고 믿음의 대를 이은 ‘다말’을, 그리고 이름도 없

### 개척 11년 만에 1만여 성도로 성장한

### 우리들교회의 김양재 목사

### 회개로 상처 치유한 목욕탕 목회

이 다윗을 도운 ‘마길’을 주목하게 했다. 사실 이 두 인물은 우리에게 요셉이나 바울처럼 유명하지 않다. 하지만, 김 목사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들은 하나님의 ‘구속사(史)’에서 없어서 안 될 이들도. 그리고 이것이 김 목사와 우리들교회의 지향점이기도 하다.

대부분은 우리들교회의 성장에 놀란다.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교인의 수가 몇인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얼마나 큰지 별로 관심이 없는 듯했다. 휘문고 강당에 교인의 절반이 모이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또 이는 “가정의 목적은 행복이 아닌 거룩”이라거나 “고난이 복”이라는 김 목사의 말에서도 잘 묻어난다.

그렇다면 김 목사와 우리들교회가 가진 가장 큰 관심은 무엇일까? 두말할 것 없이 ‘말씀’이다. 인터뷰를 위해 김 목사와 마주했을 때, “성도들이 여

자인 김양재 목사님께 어머니와 같은 푸근함을 느껴 그렇게 죄를 잘 고백하는 게 아닐까요?”라고 물었다. 그야말로 ‘쓴소리’를 들어야 했다. 김 목사는 “내가 여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 순간, 기자가 가졌던 ‘편견’도 사라졌다. 김양재 목사는 ‘여자 목사’가 아닌 ‘목사’였다.

우리들교회는 지난 11년 동안 그들만의 색깔을 내며 한 길을 걸어왔다. 그래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열매도 맺었다. 김 목사는 이제 그 열매를 한국교회와 나누려 한다. 바로 오는 10월 20~23일, 우리들교회 판교체플에서 전국교회 담임목사와 사모 및 부교역자를 대상으로 ‘우리들교회 목욕탕 목회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 교회 개척 후 처음 여는 세미나다.

김 목사는 “이 세미나는 지난 11년

간 하나님께서 우리들교회에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 부흥을 허락해 주신 모든 이야기를 소개하는 자리”라며 “11년 전 13가정과 함께 교회를 개척해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들교회는 단순함을 통한 깊이를 추구해 왔다. 성도들이 자신의 숨겨진 이야기를 하고 죄를 회개함으로써 상처와 중독 등에서 자유케 되자, 수많은 가정의 중수(重修)가 일어났다”고 소개했다. 이어 “개척 후 10년 동안은 교회 자체의 건물이 없다 보니 부흥회나 특별한 행사를 할 수 없었고, 그래서 프로그램이 없는 게 프로그램일 정도로 우리들교회는 목회의 본질에만 초점을 맞추며 그 길을 오롯이 걸어왔다”면서 “그러나 올해는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며 서로의 때를 밀어온 ‘목욕탕 교회’로서의 모든 것을 나누며, 겸손히 한국교회를 섬기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어쩌면 가장 평범한 것이 가장 비범한 것이지 모릅니다. 그 어떤 특별한 것을 찾기보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을 통해 거룩을 이루어 간다면, 결국 비범함에 이르지 않을까요. 저에게 있어 ‘말씀’은 바로 제 자신입니다. 항상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점검하며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이런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많이 만나고 싶습니다.” 김진영 기자

**여러분은 이 물을 마실 수 있습니까?**

누군가에게는 생존을 위해 피하고 싶은 더러운 물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생존을 위해 마실 수 밖에 없는 물이기도 합니다.

사진: 김상동

아프리카 10억 인구중 5억 8천만 명이 오염된 식수를 마시고 있으며, 한 해 수인성질병으로 사망하는 아동만도 1,500만명에 이릅니다.

Good Neighb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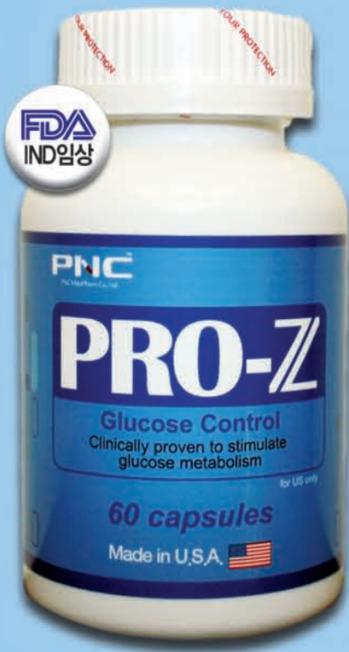
굿네이버스는 UN의 최고 고문 기관으로써 오염된 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 우물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후원신청: 1-877-499-9898  
www.goodneighbors.org



100% 천연성분

#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 PRO-Z

✓ 한국 30만병 판매 ✓ 미국 출시 기념 SALE

1병 \$76 3병 \$200 6병 \$372

### 당뇨병의 원인?

당뇨병이란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있는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에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이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아반디아와 액토스는 천연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부종, 신장부종, 간독성)과 방광암 등 유발하는 것으로 유수의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아반디아는 2010년 말에 판매가 중지되었고, 액토스는 2011년 상반기에 프랑스와 독일 유럽 전역으로 판매금지가 확산했습니다. 중앙일보 2014년 5월 15일 경제 3면에서 액토스를 복용한 한인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기사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기존의 당뇨약은 혈당을 낮출 수 있으나 각종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송문기 박사는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을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임상실험을 실시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라는 놀라운 결과를 보였습니다. 또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고, 현재 미국의 병원 2곳에서는 당뇨치료 보조제로 처방하고 있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인 '프로지'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 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sensitivity)에 깊게 관련된 사실을 주목하여 Zinc Metabolism을 활용한 신 합성물질 '프로지'를 개발하였습니다. '프로지'는 혈당강화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 분비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카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 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써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 아연이 당대사와 밀접하다면, 왜 아연으로 만든 당뇨약은 없나요?

아연은 특성상 섭취 시 인체 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고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음식에도 굴이나 소고기 등에 아연이 존재하지만, 섭취 후 3~4시간이면 소변으로 배출되고 몸에 흡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연이 췌장 세포 기능을 복원하고 근육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체내에 아연흡수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프로지'는 소의 전립선 추출물(CHP)과 아연을 킬레이트시킴으로써 체내에 머무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이 때문에 아연의 체내 흡수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송문기 박사와 연구팀은 이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취득하고 당뇨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WHO is he

송문기 박사

UCLA 의과대학 연구 교수  
미, 재향 군인 병원, 수석 연구원  
세계 3대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에 등재  
40년간 당뇨연구에 매진한 대한민국 대표 과학자

프로지를 개발한 송문기 박사는 인류 복지 건강에 위해가 되는 당뇨, 비만, 알츠하이머(치매)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40여 년간을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하와이대학, UCLA 대학교수 미 재향군인병원(US V. A. Hospital)에서 근무했으며, 가장 시급한 당뇨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미국 FDA 신약 임상시험을 거치고 있으며(현재 마지막 3차 임상시험 진행) 조만간 만족스러운 결과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 전에 FDA의 독성 TEST, 국제규격에 부합되는 임상 TEST를 거쳐 FDA로부터 신약판매 전에 건강기능식품(PRO-Z)으로 허가를 받아 당뇨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당뇨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당뇨원인 기능개선제' 프로지를 출시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체내 아연 대사와 관련한 각종 연구성과를 통해 세계 3대 100인 인명사전 중 가장 권위 있는 Marquis Who's Who에 등재된 인물입니다. 또, 현재 세계적인 과학지인 NATURE 등 세계 유수 연구 관련 기관의 심사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프로지를 아침, 저녁 하루 2알을 6달 정도 복용 후에 아침 당 수치가 내려가 지금은 정상인에 가까운 수치로 떨어짐. 몸이 부어 걷기 불편했는데 부기가 가라앉아 지금은 걷는데 지장이 없어졌습니다  
- 김OO 장로 (당뇨 10년)

프로지를 아침, 점심, 저녁에 하루 3알을 4개월간 복용하니 아침 당 수치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내려가던 당이 7개월째는 정상인 수치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서 혈당 조절을 했는데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 가지 음식을 가려서 먹다 보니 뼈밖에 안 남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음식을 이것저것 잘 먹으니 몸에 살이 붓고 건강해졌습니다.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 하루 2알만 먹습니다.  
- 최OO 목사 (당뇨 30년)

전립선이 심해서 화장실 가는 것도, 서 있고 앉아 있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프로지를 하루 3알 4달간 복용하고 나서 고통이 점점 줄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비타민처럼 하루에 2알씩 꼬박꼬박 챙겨서 먹고 있습니다. 고통 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너무도 놀랍고 감사합니다.  
- 이OO 집사 (전립선)

타주 대리점 및 프로지셀러모집중

# 213.434.1170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PRO-Z USA  
미국 공식 판매처